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

수 상 논 문 집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국립중앙도서관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수상논문집 :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 국립중앙도서관 [편]. --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2014
p, ; cm, - (도서관연구소자료집 ; 42)

ISBN 979-11-5687-079-1 9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223-1 (세트)

도서관[圖書館]

020-KDC5
020-DDC21 CIP2014034051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

Contents

국립중앙도서관장상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최우수상

001 |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팝업도서관(Pop-up library) 모델 제안**
신지은 · 고경희 · 배민지

우 수 상

037 |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적 향상**
– '사서 협업형 서평'이라는 수단으로 –
박재현

장 려 상

065 | **공공도서관 역할 다변화를 위한 소장 자료 스펙트럼 확장 제안**
– 자주출판물을 중심으로 –
홍소람

099 |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 간의 MOU체결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 제안**
문성훈 · 최호빈 · 김대성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5

최우수상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팝업도서관(Pop-up library) 모델 제안

신 지 은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고 경 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학년
배 민 지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학년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6

목차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1. 선행연구
2. 팝업도서관 사례조사

연구의 결과
1. 정보접근 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연구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2)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자원봉사자 인터뷰 분석
   3)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 인터뷰 분석
   4) 인터뷰 결과 분석

정보접근 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제안
1. 운영방안
   1) 서비스 대상
   2) 사서
   3) 열람 및 대출
   4)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시설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1)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2) 현장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3) 소통 및 휴식의 공간 제공

결론 및 제한점

참고문헌

부록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7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팝업도서관(Pop-up library) 모델 제안

신지은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고경희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학년
배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2학년

요 약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긍정적인 역할 또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도서관법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근원적인 책임은 우리 사회의 정보 불균형 현상에 대해 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그 개선책을 팝업도서관(Pop-up Library)이라는 시민에게 다가서는 도서관 서비스 개념을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보취약계층은 본래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시민 누구나 정보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정 상황이라 함은 국가적 재난 상황 또는 대규모 축제 및 행사와 같은 사회적 이슈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정보접근에 대한 정보접근 제약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접근이 제약되는 즉, 이용자들의 정보요구가 상황적인 이유로 인해 해소되지 못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자원봉사자 및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의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팝업도서관 모델을 제안하였다. 팝업도서관 모델은 상황적 제약 상황의 아웃리치 서비스 개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운영방안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8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목적

1) 문제의 제기

도서관법 제 1장 제 1조(목적)에는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정보 접근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인터넷과 매스 미디어가 발달한 디지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보주체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라디오, TV 등의 '매체'가 필요하다. 또한 정보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노인,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특정 매체를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곧 정보 빈곤자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사회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1989년에 '알 권리'를 헌법 제21조에 포함되는 자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다. 당시 판례는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2] 이러한 '알 권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를 말, 글, 그림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고 확산할 권리'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천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로 구성된다. 이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방해 받지 않고 얻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상, 의견,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요구 해소를 돕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도서관이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유일상 (200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20.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9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존재하는 도서관 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연구의 목적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예전보다 정보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도서관은 제약으로 인해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도서관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제약으로 인해 도서관에 접근이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이 직접 찾아가는 모델은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재난, 스포츠 경기, 행사 등의 사회적 이슈 현장에 도서관이 팝업도서관을 설치하여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 모델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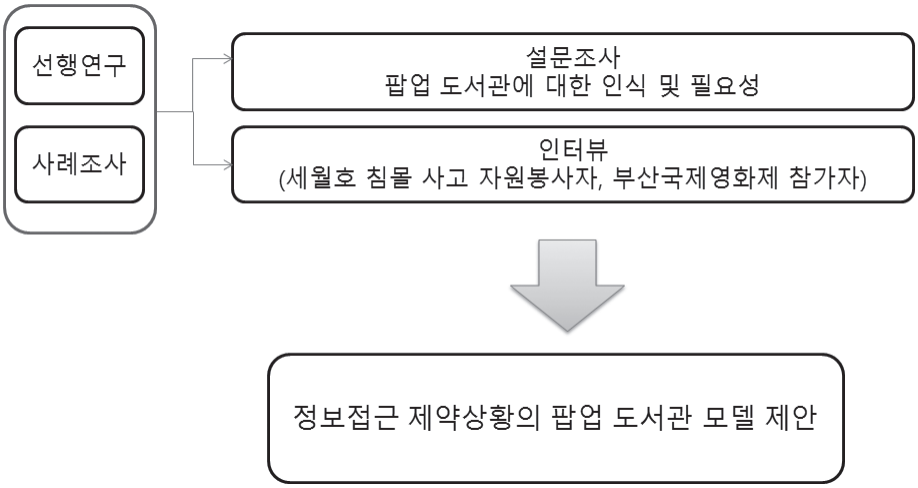
2. 연구 방법

먼저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팝업도서관에 대해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현 실태와 이용자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110명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이슈 현장의 도서관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10장 모두를 회수하였다. 또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에 다녀온 적이 있는 자원봉사자 한 명과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 한 명에게 당시의 상황, 현장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그 정보를 얻게 된 출처, 정보제공 기관의 필요성과 그 정보제공기관에 바라는 점을 인터뷰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도서관이 보다 능동적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접근 제약 상황의 팝업도서관 모델 제안에 활용하였다.

정보접근 제약 상황이란 지진, 홍수, 사고 등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월드컵, 올림픽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정의한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0

<그림 1> 연구방법



Ⅱ.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1. 선행연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많은 도서관에서 아웃리치서비스(out-reach service)를 시행하고 있다. 아웃리치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용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왔고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정병창, 이진영[3]은 이동문고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분석한 후 활성화 방안으로 서비스 대상의 확대, 이용자의 편의에 맞춘 순회시기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영신[4]은 대전지역의 이동도서관을 조사, 분석해 이동도서관 홈페이지 개설, 지역적 특성에 맞춘 순회일정, 지역사회 조사를 통한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개발, 독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의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최은주, 박종범[5]은 이용자의 측면에서의 연구를 중요시 여겨 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설문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도서관 담당 사서를 통해 문제점과 운영현황을 파

3) 정병창 외(1994). 서울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3-176.
4) 김영신(2000). 이동도서관의 이용행태 연구 : 대전지역의 이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 3, 5-23.
5) 최은주 외(2005). 이동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인문, 13, 13, 129-160.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1

악해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발전해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상기[6]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아웃리치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아웃리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아웃리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되고, 온라인으로도 제공되어야 하며 자원을 확보하고 커뮤니티가 연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용완[7]은 11개의 외국 이동도서관의 기준과 지침을 분석하여 9개의 공통적인 주요 항목을 통해 국내 이동도서관의 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정보의 제공자와 정보의 수요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이동 도서관의 모델을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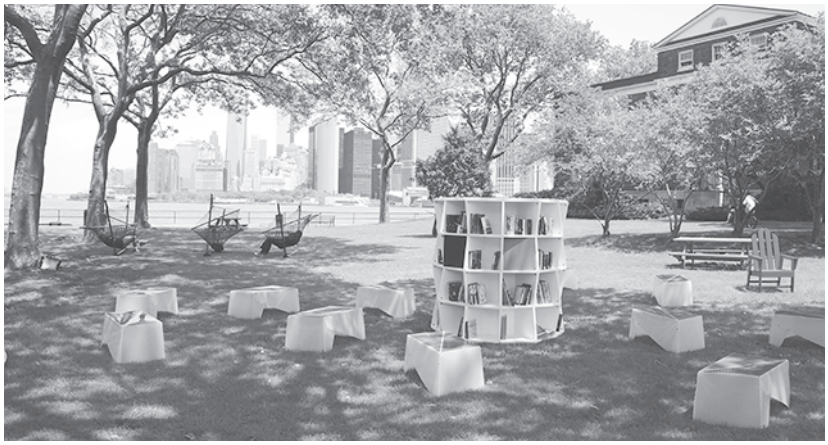
셋째,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능동적으로 서비스하는 팝업도서관 모델을 제안하려고 한다.

2. 팝업도서관 사례조사

1) 유니 프로젝트(UNI-PROJECT)

유니 프로젝트는 책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열린 공간에서 배우는 기회를 높이기 위한 비영리 프로젝트이다. 뉴욕에 기반을 둔 이 프로젝트는 건축디자인 구조, 질 높은 책, 헌신적인 직원이 있는 독서 공간을 시의 광장, 공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한다. 또한 이 모델을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출처 : www.thetravellermagazin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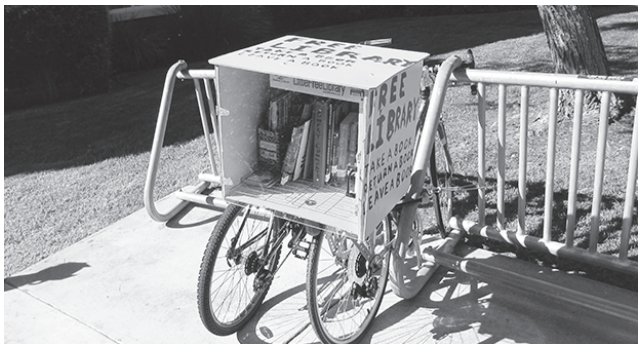
6) 최상기(2012). 공공도서관 아웃리치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 1, 311-339.
7) 조용완(2012). 이동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 3, 203-231.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2

2) 스트릿 북스(STREET BOOKS)

스트릿 북스는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수레 형태의 움직이는 도서관이다. 이용자들은 스트릿 북스 이용증을 만들어 대출, 반납을 한다. 이용자들은 주민등록증이나 주소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며, 가능할 때 책을 반납하면 된다. 스트릿 북스는 2주에 한 번 운영된다.

<그림 3,4> 스트릿 북스



그림출처 : www.thetravellermagazine.co.kr

3)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LITTLE FREE LIBRARY)

2009년 미국 위스콘신 주 허드슨 시의 한 집에서 우편함을 이용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우편함에 책을 채워 놓으면 누구나 읽고 싶은 책을 꺼내 읽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넣어둔다. 읽은 책에 대해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노트도 작은 우편함에 들어있다. 2011년 정식으로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그림 5>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

그림출처 : www.littlefreelibrary.org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3

4) 라이브러리 인사이드 아웃(LIBRARY INSIDE OUT)

뉴욕 공공도서관은 'Library Inside Out: Read Everywhere'라고 불리는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이 도서관에서는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고, 사서가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며, 도서관 이용증과 열람 공간이 제공된다.

<그림 6> 라이브러리 인사이드 아웃

그림출처 : www.thetravellermagazine.co.kr

5) 슈타트레젠 프로젝트

슈타트레젠 프로젝트는 독일 유네스코 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다. 베를린의 베벨 광장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소파와 큰 쿠션을 구비해 두고 책장에 책을 가득 채워놓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 어디에서나 앉아서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9년에 시작해 지금은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등 40여 개의 유럽도시에서 매해 4일정도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림 7> 슈타트레젠

그림출처 : www.thetravellermagazine.co.kr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4

Ⅲ. 연구의 결과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보접근 상황 지원모델 제안을 위한 연구로는 110명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자원봉사자 한 명,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 한 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뷰 결과는 인터뷰 대상자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을 요약, 기술한 후 후반부에 분석 내용을 추가하였다.

1. 상황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연구 분석

1) 설문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이슈 현장(스포츠 경기, 행사, 재난 상황 등)에서의 도서관의 필요성과 그 도서관에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110명이었고, 그 중 53명은 남성(48%), 57명은 여성(52%)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13세 이하가 1명(1%), 14세-19세가 20명(18%), 20-29세가 43명(39%), 30-39세가 18명(16%), 40-49세가 15명(14%), 50세 이상이 13명(12%)이었다. 각 질문에 대한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적 재난이나 행사 현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90%(99명)가 '예'라고 응답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 현장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곧 국가적 재난이나 행사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이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앞선 질문에서 언급되었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시설의 역할을 도서관이 한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전체 84%(92명)의 응답자가 그 도서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6%의 응답자 중 일부는 "도서관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설로서의 도서관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 번째 질문인 재난이나 행사 상황에는 어떤 형태의 도서관이 적합할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5

<표 1> 재난이나 행사 상황에서 적합한 형태의 도서관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	응답 비율	비고
버스형	64명	58%	
주변건물 임시개조	33명	30%	
천막형	7명	6%	
무응답	5명	5%	
기타	1명	1%	어플
수레형	0명	0%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이슈 현장에 파견되는 도서관이 버스형이나 주변 건물을 임시로 개조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선호했다. 그 뒤를 이어 천막형이 6%(7명), 기타가 1%(1명), 수레형이 0%(0명)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는 '어플'형태의 온라인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질문에 대한 무 응답자는 5명으로 1번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응답자 중 일부가 이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 현장에 파견되는 도서관은 버스형태나 주변의 건물을 도서관으로 임시 개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네 번째 질문인 이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자료의 형태나 유형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팝업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자료의 형태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	응답 비율	비고
신문기자	62명	26%	
단행본	54명	23%	
전자정보원	48명	20%	
잡지	40명	17%	
논문	28명	12%	
기타	4명	2%	핸드북, 어플, 실물자료, 소책자 및 팜플렛

이용자들은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하는 도서관 모델은 단행본을 구비해야한다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문기사, 전자정보원, 잡지 등을 요구했다. 논문의 선호도는 12%(28명)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핸드북, 어플리케이션, 실물자료, 소책자 및 팜플릿 등이 제안되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이슈 현장에 파견될 도서관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의 결과는 <표3>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6

<표 3> 팝업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응답

선택지	응답자 수	응답 비율	비고
열람 공간	66명	29%	
전문서적	48명	21%	
시청각자료	45명	20%	
전문사서	40명	18%	
전자기기	24명	11%	
기타	2명	1%	다양한 서적, 다양성

사회 이슈 현장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열람 공간이다. 열람 공간의 뒤를 이어 전문 서적과 시청각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재난이나 행사와 같은 이슈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주제의 전문 서적을 비치하고 적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구비할 것을 원했다. 전자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슈 현장의 도서관의 조건으로 전문 사서를 요구한 응답자는 18%(40명)에 그쳤다. 예상보다 전문 사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본 논문에서 앞으로 제안할 이슈 상황 속의 도서관을 통해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심어줄 수 있는 홍보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사회적 이슈 현장의 도서관에 제안할 점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제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답변은 다음과 같다.

<표 4> 설문조사 응답자의 기타 제안점 및 요구사항

구분	응답 내용
서비스 대상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방문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서	도서관 이용 전에 본 도서관의 취지나 본 도서관에서 다루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반적이고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동도서관의 특성상 전문적인 이용자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이용자가 요청하면 간단한 교육을 해주는 사서가 항상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시청각자료나 전자정보원 이용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이슈와 관련된 참고자료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몰입을 높여 도서관이 이슈현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열람 및 대출	디지털 자료의 이용이 용이했으면 좋겠다.
	전자기기로 카테고리 별로 나눠서 전문지식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람 및 대출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7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스마트폰 보다 정확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적 이슈 등 전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이동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 시대에 걸 맞는 전자정보시설과 작금의 젊은이들에게 잊혀져가는 역사관과 그에 맞는 서적을 비치하고 더 나아가 사회 이슈의 신속한 정보와 답변이 필요하다.
	다양한 서적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시설	만들려면 크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시설실질적인 이용,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접근이 쉬운 곳에 되도록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갈 것 같다.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규칙적인 시간과 편안한 공간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위치와 시간이 체계화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청결했으면 좋겠다.
	용이한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체감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분야의 이동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응답자들은 사회적 이슈 현장의 도서관이 접근하기 쉽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도서관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이슈 현장에 대한 정보와 그 현장에 파견된 도서관의 역할을 소개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간단한 이용자 교육과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서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장의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을 제공하고, 적절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현장의 거점이 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슈 현장의 도서관은 누구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전문적인 정보는 물론 현장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의 자원봉사자 인터뷰 분석

(1) 전반적인 현장의 상황

인터뷰 대상자는 진도체육관의 상황을 혼란이 가득 찬 곳으로 묘사했다. 세월호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에서 전원이 구출되었다는 오보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도 많은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또 언론의 오보로 현장의 사람들은 보도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를 포함한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언론에서만 보도해주는 자료를 시청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접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사건 현장에 필요한 물자와 손길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모금과 기부활동이 이어졌지만 현장과 국민들의 소통이 부족해서 국민의 도움이 현장의 필요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후 지켜보기만 하던 유가족의 지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8

인들, 시민단체들과 유가족이 소통을 하게 되고 같이 생활하며 현장의 소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현장의 사람들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자신들이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은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대표들 간의 회의에서는 어떤 사안들이 다루어졌는지 등 현장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현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취재한 내용은 실제와는 다르게 보도되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그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어요. 사건 현장의 사람들은 그곳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우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했어요."

"만약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서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편파적인 내용을 보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한 경우가 많아서 사고를 당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자료의 출처와 통계자료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2) 정보를 얻은 출처와 경로

현장의 사람들은 사건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론사가 인터넷에 보도한 자료를 보고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사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뉴스 내용의 진위 여부를 직접 분별해서 정보를 얻어야했다. 현장이 혼란스럽고, 누구에게 원하는 정보를 물어야할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에 보도된 자료 이외에도 안산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정보를 수집, 공유하였다.

"요즘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를 보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나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대부분 직접 전달되지 않았어요."

(3) 정보제공기관 존재의 필요성

인터뷰 대상자는 만약 단시간 내에 간이 도서관이 현장에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이 차분하게 글을 읽을 상황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의 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19

사고와 관련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현장과 이론은 다를 수 있으니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상황을 지시하는 관계자와 이야기함으로써, 대표자들끼리 논의한 사안을 현장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회의내용이나 전달사항, 일주일의 경과상황 등을 요약한 것을 간단하게 전달할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 제안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알려준 기관이나 정부의 조치도 없었고 나중에 사건대처 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4) 새로운 팝업도서관에 바라는 점

인터뷰 대상자는 현장의 대책위원회는 크게 실종자, 생존자, 일반인 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했다. 또 이 세 개의 그룹 중 일반인 대책위가 국민들의 관심이나 정보전달 측면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것을 지적했다. 일반인 대책위원회에도 실종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대책위원회와 생존자 대책위원회가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전국의 추모식도 학생위주의 추모식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춰 슬퍼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다.

"실종자와 생존자 대책위원회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어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고 언론에서도 이들 위주로 보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인 대책위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고 소외되었어요. 일반인 대책위원회 사람들에게도 실종자, 생존자 대책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안이 똑같이 공유되고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뷰 대상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현장에서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큰 스크린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인터넷, TV의 뉴스 시청이 가능한 큰 스크린과 같은 시설을 갖춘다면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 도서관 관계자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전문가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오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생겼으므로 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현장에서의 갈등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사실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과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인터뷰 대상자는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가능하다면 대책회의에 도서관 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직접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잘 활용하고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도서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용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0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상황에 미리 대비해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 내에서 각 담당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 가능할 것이다.

"철저하게 사고 당사자들 위주로 완벽한 매뉴얼을 갖추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고 충격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고 현장의 도서관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와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분일초가 급한 상황에서는 실전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직접적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사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면 빠른 대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도서관은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물음의 답으로 인터뷰 대상자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좋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금은 누구나 나 인터넷을 정보를 얻으니 인터넷이나 TV의 뉴스 시청이 가능할 정도로의 전자정보를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설문조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왔던 이동식 버스 형태에 미리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 둔다면 사고현장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설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주변건물을 임시로 개조하는 것 또한 안정적인 형태이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천막형 역시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고 현장의 도서관 형태라고 판단된다.

3) 부산국제영화제 참가자 인터뷰 분석

(1) 전반적인 현장의 상황

인터뷰 대상자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을 매우 복잡했던 공간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큰 건물이 몇 개 있어요. 또 부산 지역에 (부산국제영화제와 관련한) 영화를 볼 수 있는 대형 영화관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대형 영화관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외국 영화의 경우에는 국제영화제 관 안에서 상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 영화는 직접 여러 영화관을 찾아다니며 봐야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은 영화제가 열리는 현장을 거점으로, 주변의 큰 영화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현장의 사람들은 여러 건물과 주변의 대형 영화관으로 바쁘게 움직였다. 국제영화제 관은 넓고 쾌적했으나 다른 건물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혼잡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영화제 현장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1

곳곳에 사람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팸플릿을 얻거나 데스크에 간단히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었다며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했다. 또 인터뷰 대상자는 현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지만 한국 영화에 대한 자막이나 통역이 없었고, 해외 영화들도 한국어로만 자막을 제공해 주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을 겪었을지도 모르겠다며 언급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다음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남는데, 오전에는 특별히 다른 할 일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밤이 되니까 여러 가지 먹거리들을 파는 부스들이 생기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영화제와 관련된 부스는 그다지 많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제 현장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진이나 경험을 할 공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왔다기보다는 부산을 여행하고 왔다는 느낌이 더 들어서 아쉽기도 했어요."

인터뷰 대상자는 영화제 현장에서 영화제와 관련한 즐길 거리, 기념이 될 만한 장소 등이 부족했었음을 지적하였다. 큰 행사이니만큼 그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2) 정보를 얻은 출처와 경로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영화제에 관련된 정보를 찾았다. 인터뷰 대상자가 찾은 정보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상영시간표, 예매 방법, 관심 있는 영화의 시놉시스와 감독, 배우에 대한정보들과 같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이었다.

"처음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기 전에는 인터넷으로 영화제와 관련 있는 간단한 정보들을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리고 영화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영화제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알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인터뷰 대상자는 현장에서 영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현장에)가서는 너무 복잡해서 예매한 영화표를 끊는 것에 바빴고, 딱히 영화에 대해 알아볼 정신이 없었어요.… 저희가 핸드폰을 보면서 찾아다녔는데, 복잡하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2

어요. 팸플릿도 안보이고 해서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면서 영화만 보다 온 느낌이 들었어요."

대상자는 복잡한 현장에서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에 바빴고, 영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스 또한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팸플릿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현장이 더 혼란스럽게 느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에서 감독이나 배우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었고, 간단한 무대인사 정도가 진행되었다.

"저는 한국 영화 한 편과 우크라이나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우크라이나 영화는 감독이 무대 인사를 하러 올라왔는데, 한국어로만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통역사가 하는 말도 잘 안 들렸고 감독이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만 하고 퇴장해버렸어요. 제가 봤던 그 우크라이나 영화가 조금 난해해서 무대 인사에서 감독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질 못해서 아쉬웠어요."

(3) 정보제공기관 존재의 필요성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정보를 주고받는 등 소통할 수 있는 창구와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음을 지적했다. 현장에는 간단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스크가 있었으나 그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은 네다섯 명에 불과해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었다고 이야기했다.

"영화제에 찾아오는 연예인들이 언제 오는지,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싶었는데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제에 가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알기가 어려웠어요. 데스크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긴 줄을 기다려야 했어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는 영화에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영화제 일정, 지도 등의 기본적인 정보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인터뷰 대상자는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현장에 실망스러워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영화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양한 경험이나 특별한 기념이 될 만한 공간도 부족했고, 기본적인 정보도 잘 없어서 조금 불편하고 아쉬웠어요."

인터뷰 대상자는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감독이나 배우들과 소통하고 보다 더 심층적인 영화의 내용에 알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는 심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3

층적인 정보뿐 아니라 영화제에 온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편하고 재미있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팸플릿, 지도 등의 기본적인 정보나 일정 등을 알려줄 시설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4) 새로운 팝업도서관에 바라는 점

인터뷰 응답자는 영화제 현장의 도서관에 가장 먼저 휴식할 공간을 요구했다. 현장의 도서관은 복잡한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관심 있는 영화나 감독, 배우, 작가에 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을 기대했다. 또 도서관이 영화제의 하나의 랜드 마크가 되어 사람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온 기념이 될 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주기를 원했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 카페가 두세 개 정도 있는데 그나마도 좁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카페들은 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음료를 사서 마시는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생긴다면 편한 의자 등을 갖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화를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함도 없애고 정신없는 곳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게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사람들이 잘 이용할 것 같아요. 또 도서관을 특색 있고 재밌게 꾸며서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기념이 될 만한 경험을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대상자는 현장의 도서관에서 부산국제영화제만의 특색을 살린 여러 가지 자료나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영화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의 도서관은 감독과의 대화, 시나리오 작가와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국내외 감독과 배우, 작가에 대한 자료나 영화 제작 과정, 특정 영화에 대한 비평 등의 전반적인 영화에 관련된 책, 시청각자료, 신문, 잡지 등의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뷰 대상자는 도서관에서 팸플릿, 일정, 지도 등의 행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창구의 역할을 해주기를 요구했다. 인터뷰 대상자가 앞선 답변에서 이야기했었던 현장에서 느낀 불편함, 아쉬움들을 도서관이라는 기관을 통해 해소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도서관이라고 하면 조용하고 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영화제에 설치되는 도서관이라면 영화제가 즐겁고 흥미로운 행사인 만큼 도서관도 활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영화제의 특색에 맞게 재밌는 행사나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주면 관광객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것 같아요."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4

"영화제에 설치되는 도서관은 아무래도 주변에 건물을 개조한 형태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사람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버스나 천막 같은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응답자는 행사 현장의 도서관이 즐겁고 동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되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는 앞선 설문조사에서 제안되었던 기타 의견과도 일치한다. 복잡한 현장에서 도서관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 응답자는 행사 현장의 도서관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했다.

4) 인터뷰 결과 분석

두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첫째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당시 현장의 사람들은 구조 계획 및 상황이나 현장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는 구조하는 사람들과 현장의 사람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언론매체가 보도를 잘못한 탓도 있지만 소통이 부족했던 탓도 크다. 사건현장 내부관계자들 간의 소통, 그리고 사건현장과 국민들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는 '감독, 배우와의 대화'와 같이 영화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부족했다. 또 감독의 무대인사는 소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지 일방적인 감사 인사를 전하기만 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장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현장에서 정확한 구조 상황,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인터넷이 게시된 정보에 의존해야 했다. 결국 현장의 사람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했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는 팸플릿이나 지도, 일정표 같은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조차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작품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Ⅳ. 정보접근 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 모델 제안

앞선 연구의 결과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해내었다. 첫째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장의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로부터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접근 제약 상황의 팝업도서관 모델을 제시한다. 정보접근 제약 상황은 국가적 재난·재해 상황, 대규모 행사·축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팝업도서관은 도서관을 다양한 환경에 적용시켜 정보 제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5

공자와 수용자의 관점을 모두 고려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 팝업도서관은 현장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만 재난 및 재해 상황과 행사 및 축제 상황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정보접근 제약 상황에서의 팝업도서관의 운영방안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두 상황의 차이점에 따라 나누어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팝업도서관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사회적 이슈 현장의 도서관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중심 도서관과 주변 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들이 현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 제공되는 도서관의 자료는 이용자가 현장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때 사서는 현장에 관련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자료와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개발한다. 현장에서 도서관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천막을 치거나 주변 건물을 임시로 개조하여 운영한다. 사회적 이슈 현장의 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찾아올 때만 서비스하는 수동적인 도서관에서 벗어나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킨다.

이 도서관은 앞서 도출되었던 정보의 부족과 소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확성과 사실성이 높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출처를 정확하게 명시한다.

둘째, 수집된 정보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찾고 전달받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누구나 공평하게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운영방안

1) 서비스 대상

이 도서관의 이용자는 재난을 당하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6

자료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될 것이다. 도서관이 운영되는 특정 상황과 관련된 사람 모두가 잠재적 이용자에 해당한다.

<표 5> 상황별 서비스 대상

재난·재해	행사
▷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들 ▷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가 있는 사람들	
▷ 재난·재해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 ▷ 재난·재해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사람들	▷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 행사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2) 사서

사서는 해당 상황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해 참고봉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서는 현장의 조직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도서관 운영 및 정보 수집에 반영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표 6> 상황별 사서의 역할

재난·재해	행사
▷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해 참고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	
▷ 현장의 조직위원회, 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도서관 운영 및 정보 수집에 반영하는 능동적인 역할 수행 ▷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현장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 ▷ 대책회의에 직접 참여	▷ 행사위원회에 참여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 감독이나 배우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 ▷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 현장 정보 뿐 아니라 주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도 등을 제공

3) 열람 및 대출

재난이나 행사 현장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하면 자료가 손상되거나 분실될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7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도서관은 관내 열람만을 가능하게 하고 대출 서비스는 시행하지 않는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 도서관에는 매우 복잡한 현장에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넓은 열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행본, 연속간행물, 잡지와 같은 인쇄자료는 자료 형태별로 분류하고 서가에 꽂아 이용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뉴스, 보도 자료, 일정 등의 영상 자료는 도서관 내외부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스크린이나 입간판을 설치하여 제공한다. 재난상황의 경우에는 회의 내용이나 전달 사항, 상황 경과 과정 등을 요약해 작은 책자와 같은 인쇄물 형태로 만들어 제공하거나, 모바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4) 자료의 수집 및 관리

해당 상황과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해야 한다. 도서관의 규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신중히 선택하여 수집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 자료나 신문, 학술지와 같은 연속간행물도 수집할 수 있다. 자료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는 현장을 관리하는 조직이나 기관에서 그에 대한 변상을 하도록 한다. 수집되는 자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사서가 관리한다.

도서관이 수집할 정보에는 미리 갖출 수 있는 자료와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수집해야 할 정보가 있다. 미리 갖출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현장과 가장 가까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도서관과의 협력을 함으로써 여러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수집되는 자료에는 현장과 관련된 서적, 잡지, 연속간행물, 시청각자료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도서관은 현장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수집된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도서관 스스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여기서 현장 정보란 재난이나 행사 현장에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나 이용자의 정보 요구, 다른 정보원을 통해 얻을 수 없는 현장의 상황과 관련된 정보 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도서관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요구와 현장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도서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필요에 따라 현장에 관련된 다양한 언론 보도나 웹상의 신뢰할만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재가공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5) 시설

이 도서관의 형태는 이슈 현장 상황에 따라 버스형, 천막형, 건물 개조형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도서관이든지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존재해야 하며, 이용자를 위한 정보 활용 공간과 휴식의 공간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8

(1) 정보 활용 공간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열람공간과 PC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한다. 이 도서관의 규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배치가 중요하다. Information commons의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Information commons(IC)란 '도서관의 정보와 인력을 바탕으로 참고서비스와 정보기술을 결합하여 이용자들의 연구와 학습을 지원하는 통합이용자 서비스 공간'을 말한다.[8] IC에서 사람들은 전자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현장의 도서관은 IC의 개념을 도입한 정보 활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요구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2) 휴식 및 거점의 공간

사회적 이슈 상황에서 이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도서관에 북 카페나 인터넷 카페와 같은 공간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복잡한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한다. 이 공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범위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어떤 휴식 공간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만들어야 한다. 행사 현장에서 이 도서관은 현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행사 현장으로서의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을 하나의 기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하거나 기획 전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표 7> 상황별 시설

재난·재해	행사
▷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북카페나 인터넷 카페 공간 ▷ 현장의 거점 역할	
▷ 재난과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쉴 수 있는 공간 ▷ 정보가 배포·공유되는 거점 공간	▷ 행사 현장에서 현장의 중심에 위치하여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 포토존 설치 혹은 기획 전시 개최

8) 정재영(2007). 대학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정보공유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 1, 67-87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29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모델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영화제의 경우, 상영영화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현장의 도서관은 여러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통할 수 있는 창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1)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많은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재난 현장의 도서관 모델은 현장의 정보를 수집해 널리 알리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재난 현장에 존재하는 도서관은 해당 재난 상황에 관련된 여러 언론의 보도나 뉴스, 신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은 스크린으로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여주거나 전광판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에서 보도한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전자형태, 메신저로 제공하거나 전단지, 소책자, 대자보 등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다양한 언론 매체 보도 자료를 취합하고 재가공하여 객관적인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단, 이것은 보도되는 자료들이 모두 사실임을 전제로 한다.

행사 현장에서의 도서관 모델은 행사 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팸플릿 뿐만 아니라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 밖에도 사서가 본 도서관의 소개와 도서관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반적인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슈 현장의 도서관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이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8> 상황별 현장 상황 정보 제공 서비스

재난·재해	행사
▷ 현장에 대한 정보 제공 ▷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와 이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당 재난 상황에 관련된 여러 언론의 보도나 뉴스, 신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행사 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팜플렛뿐만 아니라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0

▷ 스크린으로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여주거나 전광판으로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여줌 ▷ 신문 등의 인쇄 매체에서 보도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자형태, 메신저로 제공하거나 전단지, 소책자, 대자보 등으로 정보 전달 ▷ 다양한 언론 매체 보도 자료를 취합하고 제공하여 객관적인 현장의 상황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	▷ 사서가 본 도서관 소개와 도서관이 다루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서비스 제공 ▷ 행사 일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외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참가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 제공 ▷ 외국인에 대한 통역 서비스 제공 ▷ 지체 없이 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2) 현장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앞서 소개한 서비스가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현장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는 이슈 현장에 관련된 여러 유형의 정보원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부산국제영화제 현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의 감독이 집필한 책, 배우의 자서전,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평가, 또는 감독, 배우,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감독과의 대화', '시나리오 작가와의 대화'와 같이 직접 소통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이 서비스에 해당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자가 현장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표 9> 상황별 현장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재난·재해	행사
▷ 이슈 현장에 관련된 여러 유형의 정보원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직접 소통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	
▷ 과거에 발생한 관련 사례 ▷ 재난·재해 매뉴얼 ▷ 기타 관련 자료	▷ 행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정보 ▷ 행사와 연관 있는 책 ▷ 리뷰 등 그 외 관련 자료

3) 소통 및 휴식의 공간 제공

사회적 이슈 현장의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소통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도서관은 현장 관계자의 발표, 강연을 개최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또 이용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 현장의 경우 행사와 관련된 여러 전시회를 열어 이용자들이 정보를 얻음과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 아시안게임' 현장에 관련된 전시회를 연다면 역대 아시안게임 개최지에 대한 사진,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1

경기 종목에 대한 자료에 등을 전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이용자와 도서관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 이용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청각 자료나 전자정보원을 이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과 안내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표 10> 상황별 현장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재난·재해	행사
▷ 이용자와 도서관과의 소통 ▷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 이용교육 제공 ▷ 시청각 자료나 전자정보원을 이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과 안내자료 등을 갖춤	
▷ 이용자들이 소통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 제공 ▷ 현장 관계자의 발표, 강연을 개최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이용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 행사와 관련된 여러 전시회 개최 ▷ 행사에 참여하는 도중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제공 ▷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포토존 등 랜드 마크의 역할

V. 결론 및 제한점

예로부터 도서관은 사회적 기구로서 정보를 수집, 보존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시민들의 정보 요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도서관은 고정된 위치에서 이용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정보 요구가 있는 곳에 적절한 형태와 시설을 갖추어 찾아가 서비스하는 능동적인 기구로서 활동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와 같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 요구되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부응하여, 도서관이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팝업도서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이나 행사와 같은 사회적 이슈 상황에서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 신체적 장애가 있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민이 도서관을 통해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 접근점을 마련해줌으로써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도서관 이용자용 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2

문지'는 그 설문 대상이 서울과 인천에 국한되어있고, 110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 상황에서 도서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도서관이 능동적이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한 팝업도서관 모델이 이용자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도서관이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3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서관법.

김영신 (2000). 이동도서관의 이용행태 연구 : 대전지역의 이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 3, 5-23.

김현귀 (2013). 액세스권의 기본권적 의의. 언론과법, 12, 1, 217-259.

심민석 (2007).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정보접근권. 한국비블리아 발표논집,47-66.

유일상 (2003).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20.

정동열·조찬식 (2007).『문헌정보학총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정병창 외 (1994). 서울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3-176.

정재영 (2007). 대학도서관의 Information Commons(정보공유공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 1, 67-87

조용완 (2012). 이동도서관 서비스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 3, 203-231.

최상기 (2012). 공공도서관 아웃리치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 1, 311-339.

최성진 외 (1995). 이동도서관 장서의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05-108.

최은주 외 (2005). 이동도서관 이용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시민인문, 13, 13, 129-160.

The uni-project. http://www.theuniproject.org/

Street books. http://www.streetbooks.org/

Little free library. http://littlefreelibrary.org/

The travel magazine. http://www.thetravellermagazine.co.kr/

CBS New York. http://newyork.cbslocal.com/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4

부록 1. 이동도서관 이용자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신지은, 고경희, 배민지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이동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 여러분의 의견을 파악하고 향후 도서관의 발전된 서비스 운영방법을 찾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도서관을 사랑하고 이용해 주시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성심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여 주신 이 설문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에 해당란에 'v'표 하시거나 빈칸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설문분석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13세 이하 ② 14~19세 ③ 20~29세 ④ 30~39세 ⑤ 40~49세 ⑥ 50세 이상

◎ 다음은 이동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사회적 이슈 현장(스포츠 경기, 행사, 재난 상황 등)에서 이슈와 관련된 정확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 사회적 이슈 현장에서 그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이용하겠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5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도서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버스형 ② 천막형 ③ 수레형 ④ 주변 건물 임시 개조 ⑤ 기타 ( )

4. 그 도서관이 어떤 형태의 자료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① 단행본 ② 논문 ③ 신문기사 ④ 잡지 ⑤ 전자정보원 ⑥ 기타 ( )

5. 그 도서관이 갖추어야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 체크 가능)
   ① 전문 사서 ② 전문 서적 ③ 시청각 자료(DVD, 비디오 등) ④ 전자기기
   ⑤ 열람 공간 ⑥ 기타 ( )

6. 이러한 도서관에 대해서 제안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사회적 이슈 현장 관계자 질문지

안녕하세요.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신지은(12), 고경희(13), 배민지(13)학생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인터뷰에 응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건현장에서 유가족과 관련된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해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과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찾고 싶습니다.

2. 현장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나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 기관(사람)이 있었다면 어디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6

3. 현장에서 이슈와 관련된 정확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만약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필요성을 느꼈던 때는 언제입니까?

5. 정확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 도서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이 시설이 어떠한 형태(ex. 버스, 천막, 주변 건물 임시 개조 등)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이 시설은 어떠한 유형의 자료를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이 시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ex. 주제전문사서, 전문서적, 시청각자료, 열람 공간, 서비스 등)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7

우 수 상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적 향상

- '사서 협업형 서평'이라는 수단으로 -

박 재 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8

목차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심층면담 분석
1. 심층면담 대상 및 질문 구성
2. 심층면담 분석결과

한국의 서평지와 미국의 서평지 비교
1. 한국의 서평지
2. 미국의 서평지
3. 한국 서평지와 미국 서평지의 비교

사서 협업형 서평 체계의 제안
1. 출판 환경
2. 서평의 주체
3. 서평의 구성
4. 서평지의 생산과 배포의 주체
5. 효과

결론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39

도서관 선진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적 향상

-'사서 협업형 서평'이라는 수단으로-

박재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공공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기능하는 서평의 부재를 지적하고 한국 공공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서평의 모형을 제시한다. 선정도구로써 새로운 서평이 개발된다면 현재 한국 공공도서관에서의 이용자의 요구와 베스트셀러 위주의 장서개발에서 보다 높은 질적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크다.

본 연구는 6명의 사서와의 심층면담을 통해서 기존 한국 서평의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미국의 선정도구로 이용되는 서평과 한국의 기존 서평과 비교분석하여 한국 공공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쓸 수 있는 서평의 모형을 제시한다.

심층면담의 결과 현재 한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선정도구로 서평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신속성이 부족하고 줄거리 위주라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출판사가 주도한다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미국 서평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서평의 목적, 서평의 주체, 서평의 범위, 서평의 형식, 서평의 양, 서평의 기준이라는 여섯 가지 차원에서 차이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심층면담과 비교분석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서 협업형 서평'을 제시한다. 서평의 주체는 사서이며 '서평센터'라는 중앙기구를 통해서 서평의 표준이 제시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으로 배포된다. 사서 협업형 서평체계를 통한다면 연구의 목적이었던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서 협업형 서평'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선정도구가 부실했던 한국 공공도서관 장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전후방효과로 가치있는 책에 대해서 서평이 이루어진다면 수집하는 도서관의 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또한 좋은 책을 출판하려는 군소출판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책의 전반적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0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장서의 선정은 장서개발의 한 과정으로 장서개발을 '주어진' 자원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장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때[1] '선정'은 장서개발을 핵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정과정에서 사서는 서지, 서평과 같은 선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자료를 선정한다. 특히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등 자원의 제한이 크고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한 환경에서는 장서개발에 있어 사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따라서 선정도구로써 서평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서평은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우선 서평의 목적이 도서관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독자를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서관에서의 선정 시에 요구되는 정보가 누락되거나 선정도구의 역할을 하기에는 길거나 짧은 경우가 많아 선정도구로 이용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 또한 서평의 작성주체가 출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서평의 내용의 신뢰성에서도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서평의 양은 연간 신간 출판 종수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서의 장서선정 목적에 맞는 서평을 생산하고 배포할 수 있는 사서 협업형 서평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서평체계의 개발은 서평에 포함하는 정보 등 선정도구로써 요구되는 요소로 구성하고, 서평작성 주체를 사서로 하여 서평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선정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신규 출판서적을 최대한 서평할 수 있는 서평체계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도구로써 서평이 발달된 미국의 서평과 한국의 서평에 대한 비교 분석과 소수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분석을 통해 서평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며, 이를 기반으로 서평과정 및 서평체계를 개발한다.

본 연구는 서평에 대한 요구를 소수의 사서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그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의 서평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사서들과의 심층면담 결과를 서술하고 한국과 미국의 몇몇 서평의 예를 비교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된 서평체계 및 그 예상 효과를 서술하였다.

1)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한국도서관협회, 2010), 197쪽.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1

2. 이론적 배경

장서개발은 재정적으로 한정적인 상황과 정보자원의 증가로 인해서 디지털 자료와 책,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며 장서는 관련 사서들이 비용과 효용과 효율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는 분야이기도 하다.[2] 따라서 도서관 사서는 제한된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료의 선별을 담당해야 하고 미국에서 도서선정과 관련하여 사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3]

한국 문헌정보학계에도 서평에 대한 연구는 존재했다.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과 올바른 자료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평서비스에 대해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며[4] 독서진흥을 위한 방법으로 도서관이 서평전문지를 발행해야 하며 사서의 일부는 서평가로 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5]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서평은 독자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서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즉 한국의 서평의 역할은 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를 위해서 기능했던 면이 크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단순한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베스트셀러 위주의 수서가 아니라 도서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되어왔다.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Give them what they want)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Give them what they need)로 변해왔으며[6] 이것은 장서개발에서의 선정도구의 발전과도 연관이 깊으며 '도서관의 선진화 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서개발은 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사서의 능력이 중요하다. 장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적인 서평의 존재는 장서개발 업무를 보조하여 도서관 장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연구자가 제시하는 '사서 협업형 서평'과 같은 표준적인 서평 제작 작업에 참여하는 다수의 사서들은 서평 교육을 통해 개인적인 능량을 높일 수 있으며 제작에 참여하는 사서가 근무하지 않는 도서관도 사서 협업형 서평을 통해서 장서의 질을 높일 수 있어서 대한민국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장서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2) Peggy Johnson, Fundamentals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4), 23쪽.
3) Francis K. W. Drury. Book Selection(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0), 12-13쪽.
4) 이응봉, 정선옥 "공공도서관 서평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8월 2012년): 37-40쪽.
5) 김상호.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서지학연구 29권(12월 2004년): 345-360쪽.
6) Vicki L. Gregory.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21st century library collections: an introduction(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2011), 56-57쪽.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2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첫 번째 연구방법은 심층면담이다.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6명의 사서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현재 한국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선정도구의 모형을 제시한다. 두 번째 연구방법은 미국 서평과 한국 서평 간의 비교분석이다. 미국은 세계 주요한 출판시장을 담당하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신간종수만으로 세계 2위의 규모로 347,178권의 책을 출판했으며[7] 미국의 도서관은 장서를 수집할 때 선정도구로 주로 서평을 이용한다.[8] 따라서 미국의 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사용하는 서평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미국의 서평지는 공공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쓰는 '북리스트(Booklist)'와 '라이브러리 저널(Library journal)' 그리고 대학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초이스(Choice)'에 대해서 조사하였고[9] 한국에서의 선정도구는 서평지로 가장 잘 알려진 '출판저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추천도서[10], 그리고 '학교도서관저널'을 선정하였다.

Ⅱ. 심층면담 분석

1. 심층면담 대상 및 질문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서관 환경에서 사서들의 장서개발과 선정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서평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6명의 사서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피면담자의 허락 하에 녹음하였고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다음은 준비된 세 가지 질문이다.

1) 도서관에서 장서 선정도구로 어떤 것을 이용하는가?
2) 현재 서평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선정도구로써의 서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

7) 대한출판협회, 한국출판연감(자료편), 서울: (사)대한출판협회, 134쪽, 2012년.
8) Vicki L. Gregory.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21st century library collections: an introduction(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2011), 66-76쪽
9) 공공도서관이 아닌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초이스'를 비교한 이유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도서관에서는 어떤 서평지를 사용하는지 총체적인 미국의 서평지를 연구하기 위함이다.
10) 서평지라는 간행물의 형태는 아니지만 서평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해서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3

2. 심층면담 분석결과

첫 번째 질문인 '도서관에서 장서 선정도구로 어떤 것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조사 도서관의 응답을 조사한 결과, 선정도구로써 서평의 역할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5) "보통 이용자들 희망도서 신청받고 신간도서의 경우 각종 인터넷 매체나 신문, 어느정도 사서들의 주관적인 성향으로 수서를 한다."
(응답자3) "저희같은 경우 인터넷 서점 쪽을 많이 보고 있고요. 각 기관들 추천도서, 수상작들도 살펴봅니다."

서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서평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책이 발간된 이후에 서평이 작성되기 때문에 최신성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응답자2) "저희는 실물수서시스템하고 있어요 ...(중략) 서평은 책이 나온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중략) 실물수서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최신간도서를 빨리 도서관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후략)

최신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평이 줄거리 위주라서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4) "서평을 많이 참고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줄거리 위주라서 정말 모르겠을 때 랜덤으로 몇 개 골라서 보기는 합니다.(후략)"

그리고 출판사가 서평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응답자1) "지금 서평은 출판사에서 진행하는데 그것을 믿기에는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응답자6) "현재의 서평은 규모가 있는 출판사에서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국 서평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서평이 신속하지 않다. 둘째, 서평의 구성이 줄거리 위주이다. 셋째, 서평을 출판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국 한국의 서평의 목적이 장서선정을 위한 선정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서평은 선정도구로 쓰이기는 한계가 있었다.
세 번째 질문인 '선정도구로써 서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4

(응답자1) "인기 있는 책이 아니라 가치있는 책, 홍보되지 않는 책에 대해서 발굴해서, 요구론과 가치론 가운데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서평을 해야겠지요."

(응답자2) "출판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좋은 책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수서하겠지만… (후략)"

(응답자6) "여러 인터넷 사이트가 아니라 한 곳에서 여러 신간을 볼 수 있는 서평이 있다면 좋겠네요."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현재 가치 있는 책의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서평보다는 한 곳에서 많은 책에 대한 서평을 제시한다면 일일이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하자면 서평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서평은 책이 발행된 이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최신성이 부족하다. 둘째, 기존 서평이 줄거리 위주라서 장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현재 서평을 출판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향후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한 서평은 첫째, 인기 있는 책이 아니라 가치 있는 책의 발굴을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둘째,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서평보다는 한 곳에서 많은 책에 대한 서평을 제시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기존 서평의 문제점 때문에 장서 선정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 새로운 서평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Ⅲ. 한국의 서평지와 미국의 서평지 비교

본 연구는 한국의 기존 서평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서평지로 이름이 알려진 '출판저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서평 그리고 '학교도서관저널'을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미국 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삼는 '북리스트', '라이브러리 저널', '초이스'와 비교분석하고 전체적인 차이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평 모형을 제시한다.

1. 한국의 서평지

1) 출판저널

출판저널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1987년 창간된 출판문화정론지로 서평뿐만 아니라 출판문화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5

와 트렌드 그리고 인터뷰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1] 본 논문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서평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때 2014년 8월호에는 독서&서평, <출판저널>이 선정한 이 달의 책, 신간목록에서 도서에 대한 서평과 추천사를 담고 있다.

독서&서평에서는 CEO가 읽는 책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출판저널과 산업정책연구원(IPS)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에서 공동주관하여 도서선정위원단이 선정한 20종의 도서를 매주 읽으며 저자의 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소개한다. 매 권마다 4종이 실려 있으며 특강은 주1회이며 1권의 도서를 읽고 토론이 이루어진다. 1권마다 600자 내외의 서평이 실려 있다.

또한 독서&서평 내에서 유아, 아동을 위한 독서코칭에서는 유아, 아동, 청소년, 그리고 부모와 교사를 위한 책을 소개한다. 네 권의 책을 소개하는데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서평이 이루어진다. 8월호의 독서&서평에서 제시된 서평의 예는 다음과 같다.[12]

말을 삼킨 아이/권요원 지음/김현영그림/스푼북/180쪽/값9800원
...(중략) 다 읽고 난 후, 말이 왜 소중한지, 말을 통해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가꿔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로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라고 끝을 맺는다. 출판저널은 기본 서지정보로 표제, 저자, 출판사, 페이지 수, 소비자권장가격 그리고 책의 겉표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장서개발할 때 도움이 되는 판형이나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일러스트레이션이 어떤지 등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토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기술하면서 도서관의 관점이 아니라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서평을 기술한다.

<출판저널>이 선정한 이 달의 책은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편집자가 진행한 서평으로 한 페이지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8월호에는 18종의 책을 서평한다. 책의 분야별로 인문, 시 에세이, 정치 사회, 경제 경영, 종교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1000자 내외의 에세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8월호 서평의 예이다.[13]

사람의 산, 우리산의 인문학/최원석지음/한길사/640쪽/값 20,000원-인문
...(중략)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쉬운 일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산을 보면 문득 내가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원고의 첫 독자인 편집자가 체험했기에 효능(!)은 100퍼센트 보장한다. 많은 분이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란다.

11) http://publishingjournal.co.kr/family_1.php 2014년 9월 16일 검색.
12) 오선경, "말을 삼킨 아이" 출판저널 463권 (8월, 2014년): 68쪽.
13) 이지은, "우리에게 산은 무엇인가?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출판저널, 463권 (8월 2014년): 70쪽.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6

‘이 책을 읽고 산을 보면 문득 내가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독자가 읽는다는 잠재적 전제하에서 서평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서 연구에서 지적한대로 해당 책의 출판사에서 서평을 진행하고 있다. 신간목록도 인문 학술, 소설, 시 에세이, 정치 사회, 대중문화 예술 등의 주제분야로 나누어 서평이 이루어지며, 책의 겉표지와 서명, 저자, 출판사, 페이지 수 가격과 간략한 줄거리를 제시한다. 서평은 약 150자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세이 형식의 다른 서평보다 짧지만 다량의 책을 소개하고 있다. 2014년 8월호에는 220종의 책을 소개한다. 다음은 8월호 신간목록에 등재된 서평의 예이다.

왜 우리는 군산에 가는가?/강석훈 외 8명 지음/글누림/342쪽/값16,000원
군산에 남아있는 일제 근대문화유산 이야기를 다루며 동국사에서부터 해망동까지 우리의 역사를 찾아간다.

신간목록은 줄거리 위주이며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신간목록의 마지막에 출판사에서 보내주는 보도자료를 모두 게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저널의 서평의 구체적인 목적은 공지되어 있지 않다. <출판저널>이 선정한 이달의 책에서 이지은(이지은, 2014)과 오선경(오선경, 2014)의 서평을 볼 때 독자를 위한 서평이라는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출판저널>이 선정한 이달의 책에서의 긴 에세이 형식의 서평은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서평이라서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야 함으로 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기능하기에는 시간적 투자를 요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출판저널은 목적뿐만 아니라 서평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

<그림 1-1>

신간목록

<그림 1-2>

<출판저널>이 선정한 이달의 책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7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추천도서 그리고 세종도서(구 문화부 우수도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평은 비록 서평지로 출간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요 서평이라고 판단하여 비교해 보았다. 서평은 이달의 읽을 만한 책, 청소년 권장도서, 대학신입생 추천도서로 이루어져 웹에 게시되고 있다. 그리고 세종도서(구 문화부 우수도서)는 1년에 한번씩 해당연도에 발간된 총류, 철학/심리학/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등의 분야별로 학술과 교양서적에 대해서 서평을 하고 있다.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은 1999년 6월부터 매월 10권의 추천한 책의 통합목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14]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은 매월 10권, 청소년 권장도서 매월 10권, 대학신입생 추천도서 매년 20권을 추천한다. 추천도서를 작성하는 '좋은 책 선정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상도서는 발행일 6개월 이내 신간도서이며 추천도서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실, 교보문고 광화문점 등에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을 전시하고 있다.[15] 이 달의 읽을 만한 책에서 다루는 서평의 길이는 <출판저널>이 선정한 이달의 책보다 길지 않으며 내용과 그리고 주된 핵심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서평은 출판일, 페이지, 가격 등의 책의 정보를 알려주며 이 책을 서평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다.[16] 다음은 이달의 읽을 만한 책에서 서평한 내용의 일부이다.[17]

왜 우리는 군산에 가는가?/강석훈 외 8명 지음/글누림/342쪽/값16,000원
군산에 남아있는 일제 근대문화유산 이야기를 다루며 동국사에서부터 해망동까지 우리의 역사를 찾아간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목적은 출판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전 국민 독서 생활화를 위해 추천도서를 선정·발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8] 기술 내용도 표제, 저자, 출판사, 쪽수, 출판일, 소비자권장가격, 서평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 없다. 형태사항, 책의 크기, 혹은 삽화의 여부 등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도서관에서 선정도구를 위한 목적에는 완전하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서평기준으로는 무엇을 삼고 있는지 제시하지 않는다.

14) http://www.kpipa.or.kr/info/recommBook.do?board_id=35에서 통합목록 다운로드. 2014년 9월 16일 검색.
15) http://www.kpipa.or.kr/info/recomm_acc.do 2014년 9월 16일 검색.
16) 9월의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은 8월 말에 선정되는데 9월에 좋은책 선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웹 페이지에서는 서평자 정이현을 찾아볼 수 없다.
17) http://www.kpipa.or.kr/info/recommBookInfo.do?board_id=35&article_id=18806&book_info_id=1&sc_genre=&sc_year=2014&sc_month=09 2014년 9월 27일 검색.
18) http://www.kpipa.or.kr/info/recomm_acc.do 2014년 9월 27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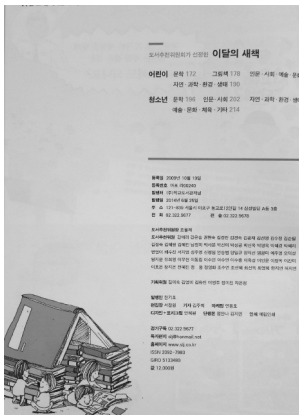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8

3) 학교도서관저널

학교도서관저널은 ㈜학교도서관저널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사서교사에 대한 글과 교육의 관점에서 쓰인 글들이 담겨있다. 서평은 도서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새 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 7월, 8월 통권 45호에서는 이 달의 새 책에서 총 55권의 책을 소개한다. <그림2-1>에서 보이듯이 학교도서관저널은 목차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분리하였고 어린이에는 문학, 그림책, 인문 사회 예술 문화, 자연 과학 환경 생태로 주제분야를 나누었고 청소년은 문학, 인문 사회, 자연 과학 환경 생태, 예술 문화 체육 기타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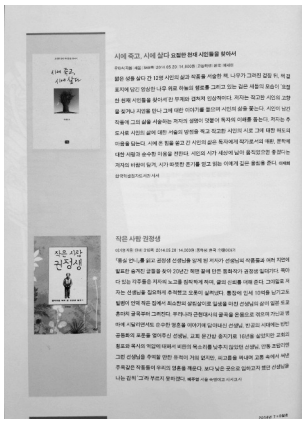
<그림2-2>는 학교도서관저널의 서평이다. 한 페이지에 한 권에서 두 권정도 서평하고 있으며 서평의 구성은 책의 표지와 서명, 저자, 출판사, 페이지 수, 발행일, 소비자권장가격, 이용자 계층, 발행국가, 그리고 기타 특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특징은 어떤 장르인지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한다. 서평의 주체는 학교 사서교사들로 2014년 7월, 8월 통권 45호는 55개의 신간 서적을 다루었다. 또한 <그림2-1>을 보면 목차 아래부분에 서평을 담당하는 도서추천위원의 이름을 밝히고 있으며 서평의 마지막에도 해당 서평을 한 사서 교사의 이름을 밝힌다.

<그림 2-1>



목차

<그림 2-2>



서평

다음은 학교도서관저널 2014년 7월, 8월 통권45호 서평의 예이다.

조선직업실록/정명섭지음/북로드/296쪽/2014.04.21./14,000원/중・고등학생/한국/역사
...(중략) 가치관이 바뀌면서 직업의 선호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단지 돈과 권력을 위한 직업이 아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직업을 선택하기를 기대한다. 이무현(의정부 경민여중 역사교사)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49

청소년들에게 '돈과 권력을 위한 직업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서평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저널은 학교도서관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서평하는 것인지, 혹은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는 것인지 서평의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무현(이무현, 2014)의 서평을 보면 학교도서관저널은 교육적 측면을 위한 서평에 중점을 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저널'에서 삼고 있는 서평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2. 미국의 서평지

1) 북리스트(BOOKLIST)

1905년 1월 처음 발행된 북리스트는 미국 도서관 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서평지로 9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두 번씩 발행되고 7월과 8월에는 한 번씩만 발행한다. 북리스트의 창간 호에서 밝힌 발행 목적에 의하면, 북리스트는 현재 가장 최신간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제공하여 사서들의 수서(selection)에 도움(assist)를 하기 위한 것이다.[19] 즉 서평의 제작 목적 자체가 수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평을 작성하는 사람들은 주로 도서관 현직 사서들이다. 234명의 사서 및 전문가들이 북리스트의 서평에 참여하고 있다.[20] 서평가들은 도서관에 적합한 다양한 지역 공동체와 독자들 그리고 자료들을 추천한다. 그리고 분야별로 서평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성인용 책은 어떤 도서관 장서라도 오랜 가치를 가지는 책과 최신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서평을 한다고 서평 기준을 밝히고 있다.[21] 그리고 북리스트는 서평뿐만 아니라 출판업계의 동향과 최신 출판 서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림3-1>에서 보이듯이 서평 목차는 크게 성인용과 청년용으로 나뉘며 어른용 논픽션과 픽션 그리고 참고도서로 나뉘고 청년용 역시 논픽션과 픽션 그리고 오디오자료로 나뉜다. 논픽션은 보도 & 출판 그리고 철학 & 심리 그리고 종교, 사회과학 등으로 나뉜다. <그림3-2>를 보면 한 페이지에 약 5개에서 6개 정도의 서평을 제시하는데, 한 페이지 전체를 할애해 추천을 하기도 한다. 2014년 8월 14일에 출간된 110권 22호에서 서평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총 309권이며 북리스트

1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Booklist. vol. 1, no. 1(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05), 2쪽. "meet an evident need by issuing a current buying list of recent books with brief notes designed to assist librarians in selection. Other features, such as annotated lists on current topics, will probably be added later, and in general, any matter useful to those in charge of smaller libraries will here find an appropriate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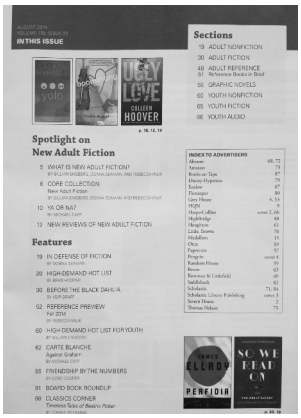
20) http://www.booklistonline.com/reviewers 2014년 9월 20일 검색.

21) http://www.booklistonline.com/get-reviewed 2014년 9월 20일 검색.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50

는 연간 약 8000권의 신간을 서평한다.[22] 그리고 최신간을 다루는데,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을 서평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23] 또한 서평의 마지막에 누가 서평을 했는지에 대해서 빠짐없이 밝히고 있다.

<그림 3-1>



목차

<그림 3-2>

서평

다음은 2014년 8월에 출간된 북리스트 110권 22호 서평의 예이다.

Mars up close: Inside The Curiosity mission by Marc Kaufman /Aug. 2014/204p/illus./National Geographic/$40/9781426212789
많은 책들은 화성에 대해 다루었다. 천문학자들은 반짝이는 붉은 화성을 원시적인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찰했지만, 누구도 이 마음을 사로잡는 책처럼 NASA의 가장 큐리오시티의 임무에서 완전한 색으로 가까이 찍은 사진을 포함한 적이 없다 ...(중략) 최신의 화성탐사에 눈을 뗄 수 없고 유익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책은 우주에 관심이 있거나 기술자, 기술 애호가가 좋아할만하다. -Carl Hays[24]

서평의 마지막에는 해당 책의 적합한 이용계층을 제시하고 책의 형태사항에 대해서 밝혀서 사서의 입장에서 줄거리뿐만 아니라 형태사항과 이용자 계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2) http://www.booklistonline.com/faq#ABOUT BOOKLIST PUBLICATIONS 2014년 9월 19일 검색.

23) 2014년 8월 14일 출판된 Booklist 110권 22호 43쪽을 보면 The Disappearance Boy는 2014년 10월 Bloomsburry 출판사에서 출판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51

2) 라이브러리 저널(LIBRARY JOURNAL)

라이브러리 저널은 1876년 처음 발행된 서평지로 1년에 20번씩 발행이 되며 연간 약 7000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다룬다. 라이브러리 저널의 서평은 선정도구로 공공도서관과 대학 도서관 모두 쓰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매년 다양한 주제의 약 7000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담당한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저널은 사서들과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이브러리 저널 웹 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서평의 기준은 175~200단어 정도로 간단히 주제에 대해 요약하고 줄거리를 기술하고 구성요소와 제작 모두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서평가들은 약 15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평의 질은 서평가들의 전문성에 의해 결정된다.[25)]

라이브러리 저널은 서평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 저널 뉴스(ljnews)를 제공하여 기술, 산업, 출판, 연구분야 등의 최신동향도 함께 제공하며 1년에 20번 발행된다. 1월, 7월, 8월 12월에는 한 번씩 발행되고 나머지 달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발행된다. <그림4-1>을 보면 라이브러리 저널은 책뿐만 아니라 소리도서에 대한 서평과 시각자료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다. 출판전 알림(Prepub Alert)은 출판 전 도서에 대해서 서평을 쓰고 있고 미스터리, 만화 소설, 픽션, 예술 & 인문, 사회과학, 과학 & 기술 등의 주제분야로 서평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브러리 저널은 모든 도서관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망라적으로 책을 선택하고 있으며 2014년 8월호는 283권의 도서리뷰를 제공한다. <그림4-2>를 보면 라이브러리 저널은 한 페이지에 4개에서 5개의 신간서적에 대해서 서평을 제시하고 있으며 서평의 마지막에 서평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

24) Countless books have been written about Mars, ever since astronomers could peer at the twinkling red orb through primitive telescopes, but none have ever included more sumptuous full-color close-up photographs than this engrossing coffee-table book on NASA's recent curiosity mission...(중략) A delightfully compelling and informative peek at cutting-edge Martian exploration, this volumn will appeal to space enthusiasts, engineers, and technology buffs alike - Carl Hays.

25) http://reviews.libraryjournal.com/about/guidelines-for-library-journal-reviews/?ref=menu 2014년 9월 20일 검색.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5 페이지 52

<그림 4-1>

LIBRARYJOURNAL
reviews
www.libraryjournal.com
[media]
[books]

목차

<그림 4-2>

SOCIAL SCIENCES
POLITICAL SCIENCE

서평

다음은 2014년 8월에 출간된 라이브러리 저널 139권 13호 서평의 예이다.[26)]

Snow, Peter/When Briatian burned the White House/Thomas Dunne: St.Martin's/Aug. 2014/320p/notes. bibliog. index/ISBN 9781250048288/$25.99/ebk. ISBN 9781466848948/HIST
...(중략) 한 가지 새겨두어야 할 것은 여전히 1812년의 전쟁에서 어느 쪽이 이겼는지, 그리고 모든 정복된 영토를 돌려달라고 강요하는 협상된 평화로 종결되었던 그 전쟁에 대한 애매함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독자는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평가 ...(중략) 19세기 정치, 군사, 외교 역사학자들에게 적합하고 앵글로-아메리칸 관계의 전문가; 일반 독자; 모든 도서관에 적합하다. -John Carver Edwards, univ. of Georgia Libs., Cleveland [27)]

존의 서평에서 보이듯이 'Thomas Dunne'이라는 출판사를 포함해 책의 형태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주기(notes)라고 기술하여 해당 책에서는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주석을 달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서지정보(bibliography), 색인(index)이 책에 들어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서평자의 평가도 언급하여 어떤 이용자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도서관에 적합한 책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 라이브러리 저널의 서평은 선정도구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6) Edwards, John, C., "When Briatain burned the White House", Library journal, vol 149 no 13, (August 2014): p.204.

27) One is reminded that there is still lingering ambiguity as to which side really won the War of 1812, which terminated in a negotiated peace mandating the return of all conquered territory. The reader is left to decide. VERDICT ...(중략) Wonderful for 19th-century political, military, and diplomatic historians; specialists in Anglo-American relations; general readers; and all libraries.-John Carver Edwards, univ. of Georgia Libs., Cleveland (연구자 번역)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53

3) 초이스(CHOICE: CURRENT REVIEWS FOR ACADEMIC LIBRARIES)

초이스는 1964년 시작된 서평지이고 대학 도서관을 위한 최근 신간의 서평(Current Reviews For Academic Libraries)이라는 부제로 대학도서관을 위한 출판물에 대한 서평임을 밝히고 있다. 초이스는 미국 대학, 연구 도서관 협회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에서 발행한다. 책은 참고도서, 인류학, 과학 & 기술 그리고 사회 & 행동과학으로 분류한다. 한 페이지에 약 9권의 서평이 기술되어 있으며 매년 7000권 이상의 책에 대한 서평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22,0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초이스를 통해서 장서개발을 하고 있다. 단행본의 경우 190단어를 넘기지 않으며 인터넷 자료의 경우 190단어를 넘기기도 한다.[28]

초이스의 웹 페이지에서는 초이스에서 평가하는 기준과 서평의 내용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저자가 주제에 접근하는 것을 설명한다 2)책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밝힌다. 3)주제분야에 기여하는 것을 평가한다. 4)장점과 결점에 초점을 맞춘다. 5)비슷한 책과 비교한다. 6)책과 적합한 이용자를 구체화한다고 밝히고 있다.[29]

북리스트와 라이브러리저널과 다르게 흑백으로 인쇄되었고, 책 겉표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서평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 3300명이고 서평자 중에 450명, 15%는 사서이고 나머지 서평의 주체는 주제분야 전문가이거나 대학 교수들이다.[30]

<그림5-1>을 보면 초이스는 참고도서, 인류학, 과학&기술 등의 분류를 통해서 책을 서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5-2>를 보면 책에 대해서 추천의 정도에 따라서 별점을 부여하고 있다. 서평의 마지막에 추천(Recomended): ★★, 강하게 추천(Highly Recommended): ★★★, 필수(Essential): ★★★★ 등으로 도서의 추천정도를 나타내고[31] 어떤 이용자에게 적합한지 알려주기도 한다.[32]

---

28) http://www.ala.org/acrl/choice/about 2014년 9월 19일 검색.

29) http://www.ala.org/acrl/choice/about 2014년 9월 19일 검색.
1) Explain the author's approach to the subject 2) Describe the work's arrangement 3) Assess its contribution to the field 4)Focus on strengths or deficiencies 5) Compare it with similar titles 6) Specify the audience for whom the work is best suited. (연구자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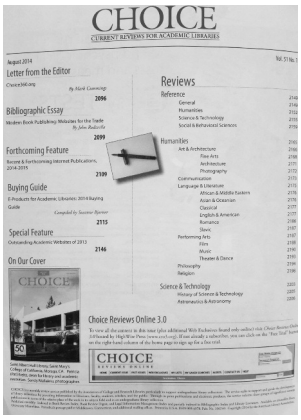
30) 연구자가 직접 초이스에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이메일 수신일: 2014년 9월 22일).

31) http://www.ala.org/acrl/choice/about 2014년 9월 19일 검색. Essential: A publication of exceptional quality for academic audiences and a core title for academic libraries supporting programs in relevant disciplines. Highly recommended: A publication of high quality and relevance for academic audiences. Recommended: A publication containing good content and coverage and suitable for academic audiences. Optional: A publication that, due to limited value or deficiencies, is marginal for academic audiences.Not recommended: A poor quality publication or one not suitable for academic audiences.

32) 전체(All levels), 대학교 3학년부터(Upper division undergraduates and above) 등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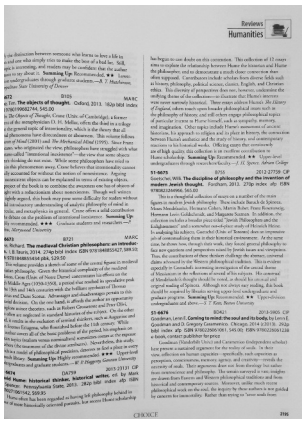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54

<그림 5-1>



목차

<그림 5-2>



서평

다음은 2014년 8월에 출간된 초이스 51권 12호 서평의 예이다.[33]

Divided: the perils of our growing inequality, ed. by David Cay Johnston/51-6853 HM821 2013-31718 CIP/New Press/2014/324p/bibl/ISBN 97815955892351/$25.95
퓰리처상을 받은 저널리스트, 존스턴은 현재 미국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련한 강력한 읽을 거리를 쌓아왔다 ...(중략) 그리고 학자들은 건강과 교육의 결과, 빚, 가난 그리고 중간계층이 사라지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불평등의 측면을 이야기한다. ...(중략) 수업의 문맥에서 이 책은 불평등과 관련한 수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있다. 요약: 추천 ★★ 대학생 저학년과 그 이상; 일반 독자-J.P.Jacobsen, Wesleyan University [34]

51-6853은 '초이스'의 식별번호다. 앞의 숫자는 '초이스'의 권(volumn)에 해당하고 6853은 '초이스'에 실린 서평의 번호이다. HM821은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에서의 주제분류코드(subject identification code)에 해당한다. 2013-31718 CIP는 미국 의회도서관의 출판예정도서목록 번호(CIP control number)를 의미한다.[35] 그리고 책에서 서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평에서는 이용자 계층에 대해서 제시하고 대학에서 어떤 목적으

33) Jacobsen, J. P., "Diveded: the perils of our growing inequality", Choice, vol 51 no 12, (August, 2014): p.2235.

34) Johnston, a Pulitzer Prize-wining journalist, has compiled a compelling set of readings regarding the current dimensions of US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중략) scholars discuss various aspects of inequality, including links to health and education outcomes, debt, proverty, the vanishing middle class. ...(중략) Summing Up: recommended. ★★ Lower-division undergraduates and above; general readers.-J.P.Jacobsen, Wesleyan University (연구자 번역)

35) 연구자가 직접 초이스에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이메일 수신일: 2014년 9월 26일)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55

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요약에서는 적합한 이용자 계층을 밝히고 출판예정도서목록 번호, 주제분류코드 등의 서지정보를 기술하여 사사의 입장에서 해당 책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 한국 서평지와 미국 서평지의 비교

한국의 서평지와 미국 서평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한국 서평지	미국 서평지
서평의 목적	독자를 위해서	도서관 장서의 선정도구
서평의 주체	사서 및 전문가등 [36]	사서 및 전문가
서평의 범위	신간서적	신간서적 외 다양한자료
서평의 형식	에세이 형식과 짧은 글	짧은 글
서평하는 책	약 연 120~2640권	약 연 7000~8000권
서평의 기준	제시되지 않음	제시됨 [37]

우선, 한국의 서평지와 미국의 서평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평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의 서평지는 이용자의 도서 선정을 위해서 에세이 형식의 서평도 존재하고 짧은 글의 형식도 존재한다. 반면에 미국의 서평지는 도서관 장서의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짧은 글을 통해서 간결하게 서평을 작성하고 있다.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에세이 형식의 서평보다는 간결한 서평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서가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 서평지는 서평의 주체에서 사서들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 서평지에서는 사서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공공도서관보다 심화된 주제분야를 다루는 대학 도서관의 선정도구로 기능하는 초이스에서도 사서의 서평 비율은 15%나 되었다.

또한, 서평하는 책의 분량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한국 서평지의 최소 120권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추천도서의 서평의 수이고 최대 2640권은 연간 출판저널에 실리는 신간목록의 대략적인 수이다. 한국 서평지에서 다루는 책은 절대적으로 양이 적다. 그리고 가장 많이 서평하는 출판저널의 신간목록의 경우 양은 많지만 서평이 선정도구로 기능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 그리고 서평의 범위는 한국의 서평지는 신간서적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미국의 서평지는 신간서직 및 청각자료와 시각자료를 같이 평가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학교도서관 저널을 제외하면 사서의 서평 담당은 미비하다.
37) 미국 서평지의 서평 기준은 개별 서평지의 웹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56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평지에서는 서평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데 미국의 서평지는 서평의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의 서평지는 도서관에서 장서의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서평으로 책을 홍보하려고 할 것이라서 서평지는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서평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한국의 서평지와 미국의 서평지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책을 한국 서평지와 미국 서평지가 어떻게 다루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출판저널에 나온 신간서적인 한국식 표제 '웨이파인더'와 북리스트에 소개된 미국식 표제 'The Wayfinders'에 대한 서평을 비교해보았다.[38]

출판저널 2014년 8월
<웨이파인더> 웨이드 데이비스 지음 / 이승민 옮김 / 검은 문고 / 188쪽 값 13,000원 TED 인기강연자이자 문화인류학자인 웨이드 데이비스는 이 책을 통해 인간으로 숨 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옛 부족의 지혜가 현대사회에 왜 필요한지 묻고 답한다.

Booklist October 1, 2009
★The Wayfinders : Why Ancient Wisdom Matters In the Modern World. By Wade Davis. Oct. 2009. 272p. Anansi, paper, $15.95 (9780887847660). 306. 민족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데이비스는 자신의 최신 연구에서 위기에 처한 다양한 토착문화의 정신을 중요한 화두로 제시한다. 환경보존 뿐만 아니라 문화 보존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속작가인 데이비스는 하늘과 바람, 대양을 읽고 항해하는 고대 항해법에 숙련된 폴리네시안 웨이파인더와 여행을 떠난다...(중략) 그러나 우리 인류는 아직 다양성을 잃지 않았다. 위험에 빠진 이러한 사회들을 보호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데이비스의 연구에 담긴 통찰력과 그의 꿈을 통해 우리 인간은 놀라고 또 겸허해진다.[39] - Donna Seaman.

38) Seaman, Donna, "The wayfinders: Why Ancient Wisdom Matters In the Modern World", Booklist vol 106 No 3, (October, 2009): p.12

39) Ethnographer and anthropologist Davis extends his urgent inquiry into the ethos of divers and imperiled indigenous cultures in his latest trenchant disquisition. Stressing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not only nature but also cultures that have for millennia inspired people to live ecologically sustainable lives. Davis, a National Geographic explorer-in-residence, voyages with a Polynesian wayfinder skilled in the ancient art of navigation based solely on reading the sky, wind, and ocean. ...(중략) but we haven't lost our ingenuity. If we protect these endangered societies, we can learn from them. Davis astonishes and humbles us with his discoveries, insights and dreams. - Donna Seaman. (연구자 번역)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57

주지하다시피, 출판저널의 서평은 북리스트의 서평에 비해서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수서하는데 선정기준으로써 기능하기 어려워보인다. 서평의 내용 또한 책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줄거리를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북리스트의 서평은 책의 형태가 경장본임도 밝히고 있어서 도서관의 입장에서 장서의 보관과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존 서평은 공공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많으며 선정도구로 기능할 수 있는 서평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Ⅳ. 사서 협업형 서평 체계의 제안

본 연구는 현재 한국 서평의 한계와 앞서 살핀 심층 면담 결과 및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제안을 토대로 하여 '사서 협업형 서평'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도서관 환경에서 사서를 위한 서평, 즉 장서개발을 할 때 도움이 되거나 기준이 되는 서평이 부재하므로, 도서관 장서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서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서 협업형 서평'을 도입할 경우, 방대한 양의 신간서적 중 베스트 셀러 위주의 장서개발이 아니라 잠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전반적인 장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출판 환경

문헌정보학사전에 의하면 서평의뢰본(review copy)라는 용어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 정의는 '신간도서의 서평을 받기 위하여 출판사가 신문사나 잡지사에 보내는 도서'이다.[40] 미국은 서평의뢰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북리스트가 출판되지 않은 책에 대해서도 서평을 할 수 있는 이유는 Advance copy 혹은 Advanced readers copies(ARCs, 이하 ARCs)를 통해서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은 책을 이용해서 서평을 작성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41] ARCs는 저자나 편집자 등이 서평을 하기 위한 예비출판이다. 정식 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책 정식 출판되는 책과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서평을 하기 위해서 서평의뢰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다.[42]

4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편,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0), 200쪽.
41) 연구자가 직접 '북리스트'에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였다. (이메일 수신일: 2014년 9월 16일)
42) 연구자가 직접 대한출판협회의 웹 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였다. (답변일: 2014년 9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58

출판사에서 납본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은 출판예정도서목록(Cataloging in Publication)이다. 출판사는 출판예정도서목록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출판예정도서목록만으로는 정확한 책의 내용을 알기 어렵고 평가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계에서 장서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국에 미국의 활발한 ARCs와 같은 환경이 구축되어 신간서적에 대한 서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 서평은 선정도구로 기능하여 장서개발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ARCs 구축을 위해서는 출판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좋은 책을 출판하려는 출판사는 자신의 책에 대해서 서평의뢰를 하고 서평에 의해서 많은 도서관에서 수서가 된다면 군소 출판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서평의 주체

미국에서 '아마존'(Amazon.com)과 '굿리즈'(GoodReads.com)에서 독자들이 직접 작성한 서평이 늘고 있다.[43] 하지만 이용자의 서평과 '북리스트'의 사서의 서평은 큰 차이점을 갖는다. 그것은 바로 서평하는 시각의 차이점이다. 독자가 진행하는 서평의 경우 독자의 관점에서 서평을 진행하고 사서가 진행하는 서평은 장서개발의 관점에서 서평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서개발에서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한 서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7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에서는 '서평 및 연구논문 작성과정'이라는 단행본을 발행하여 서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서평전문가로서 사서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사서가 서평을 써야 하는 이유로 첫째, 자료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둘째, 독자의 수준과 요구 파악 용이하며 셋째, 주제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며 넷째, 학문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섯째,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 확보, 마지막으로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밝히고 있다.[44] 따라서 사서의 서평은 공정한 서평과 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이용하기 위한 서평 모두를 위해 어느정도 적실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서평을 담당하는 사서는 공공도서관 사서에서부터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사서까지 도서관 종류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상대적으로 열위일 수 있는 교양서의 경우 대학도서관 사서, 전문 도서관 사서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서개발은 사서의 질적 업무이기 때문에 도서관 장서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

43) 윤정옥,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이용자 서평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권 2호 (2012): 124-126쪽.
44)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능력발전과 편, 서평 및 연구논문 작성 과정,(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 발전과, 2007), 9쪽.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59

째, 직접적으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선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둘째, 신간서적에 대해 사서의 관점으로 제시된 서평을 제공하여 도서관 장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리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사서 협업형 서평은 두가지 방법 모두 해당된다.

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사서들에게 보수 혹은 명예를 주는 방식이 있다. 보수가 주어지는 방식은 보수의 수혜자가 사서 개인 차원과 도서관이라는 기관 차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도서관에 지원금 형식으로 보수가 주어진다면 사서가 많고, 큰 규모의 도서관의 경우, 사서 협업형 서평에 참가하는 사서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 보수가 지급되는 방식보다는 사서 개인에게 일정 금액을 전달해야 하거나 사서 협업형 서평에 참가하는 사서에게 명패를 주고 도서관에 전시하여 도서관과 사서의 명예를 모두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서평의 구성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도서의 개수, 연속간행물의 종수가 각각 3,279,789개와 140,701종이고 이에 비해 장서의 수는 78,126,501권이기 때문에[45] 선정도구로써의 서평이 부재했던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유하는 자료의 양이 많은 장서에 해당하는 서평을 진행하고 미국처럼 점차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서평의 구성은 미국 서평의 장점과 한국 서평의 장점을 복합하여 구성한다. ①표제 ②저자/편집자 ③번역자(없으면 제외한다.) ④출판사 ⑤출판시기 ⑥ISBN ⑦소비자권장가격 ⑧형태사항 ⑨줄거리 ⑩평가 ⑪총점 ⑫이용자 계층 ⑬적합한 도서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한국 서평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서평의 구성은 ⑧형태사항 ⑩평가 ⑪총점 ⑫이용자 계층 ⑬적합한 도서관이다. 따라서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이때 ⑧형태사항은 장서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평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평가 혹은 활자의 크기가 작아서 노인계층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⑪총점은 사서가 선정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점과 같은 방식으로 시각화해야 하며 ⑫이용자 계층은 계층에 국한될 필요없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대학생 등으로 간략하게 책의 난이도와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여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⑬적합한 도서관의 경우 본 책의 경우 어떤 책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집할 필요 없다는 평가도

45)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78-79쪽.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0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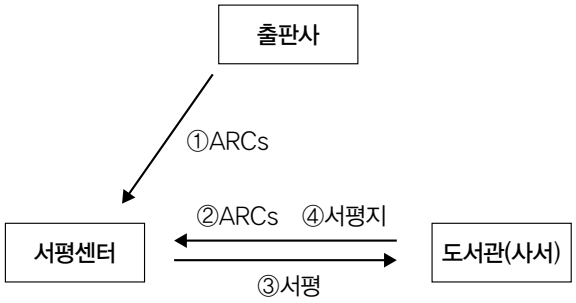
한국 도서관에 적합한 서평을 위해서는 한국의 출판시장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신간 서적중 번역판의 종수는 2012년 기준으로 10,224종이다. 총 39,767종의 신간이 나왔던 신간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사분의 일이다.[46] 따라서 번역판에 대한 기준도 필요할 것이다. 번역판의 경우 해당 원저자에 대한 이야기, 혹은 평가, 그리고 번역가에 대한 평가도 추가되어야 한다.

4. 서평지의 생산과 배포의 주체

'사서 협업형 서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한국 도서관 협회 등 기존의 적절한 기관에서 서평센터를 구축하거나 독립된 기관을 설치하여 서평을 진행하는 사서들에게 서평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서평을 모아서 편집,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서들의 협력을 위해서는 개별 도서관이 진행하는 것보다 서평센터의 존재가 필요하며 출판사로부터 개별 도서관이 ARCs를 받는 것보다는 주제분야에 맞게 서평센터를 중심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서 협업형 서평'의 생산과 배포의 간략한 과정은 <그림6>과 같다.

<그림6>



출판사에서 ARCs를 서평센터에 보낸 후 서평센터는 사서 협업형 서평을 만드는 사서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사서에게 ARCs를 보낸다. 그리고 사서는 ARCs를 기반으로 진행한 서평을 다시 서평센터에 보내면 서평센터에서는 서평지를 만들어서 공공도서관에 배포한다. 서평지의 경우 인쇄와 배부까지의 과정이 있겠지만 웹진의 경우 인쇄소까지 갈필요가 없이 편집한 후 인터넷 웹 페이지에 게시하면 되어서 신속성은 높아진다.

46) 대한출판협회, 한국출판연감(자료편), 서울: (사)대한출판협회, 116쪽, 2013년.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1

5. 효과

국립중앙도서관 혹은 한국 도서관 협회 등이 설립한 서평센터에서 서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서평을 제작한다면 사서들이 수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서평의 제작과 더불어 서평을 담당하는 사서에게 서평교육을 진행한다면 사서의 서평능력을 제고하여 한국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서 협업형 서평이 가능하다면 도서관계뿐만 아니라 출판계에서도 좋은 책을 출판하려는 군소출판사들도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좋은 책을 출판하려는 군소출판사의 증가는 한국 책의 질적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공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정도구는 도서관 장서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출판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후방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기존 서평이 도서관 선정도구로 기능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직 사서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서평이 선정도구로 기능하기 어려운 이유와 도서관에서 선정도구로 기능하는 미국의 서평과 비교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의 결과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서평을 선정도구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서평은 책이 발행된 이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속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서평의 구성이 줄거리 위주로 되어있어서 참고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출판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서들이 원하는 선정도구로써의 서평은 인기있는 책 보다는 가치가 있는 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는 서평을 원했고, 서평을 한 곳에 모아 검색하기 쉽도록 만든 서평이었다.

연구자는 미국에서 선정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서평의 모형과 한국의 기존 서평을 비교분석한 후에 한국 출판 환경에서는 미국처럼 ARCs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서평의 구성과 제작 및 배포를 담당할 서평센터 그리고 배포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사서 협업형 서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출판계의 협력도 필요하다. 미국의 ARCs는 서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핵심'이었고 ARCs는 출판계에서 자발적으로 서평 제작에 협조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별도서관이 사서들의 협력과 출판계의 협력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한국도서관협회와 같은 중앙기관에서 서평센터를 만들고 서평의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사서 협업형 서평'이 가능해진다면 기존에는 이용자의 요구와 베스트셀러 위주로 장서개발이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가치가 있는 책을 수집할 수 있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2

게 되어 도서관 장서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계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책을 만들려는 출판계의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한국 책의 제반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된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3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능력발전과 편, 서평 및 연구논문 작성 과정.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능력발전과, 2007년.

대한출판협회, 한국출판연감(자료편). 서울: (사)대한출판협회, 2012년.

대한출판협회, 한국출판연감(자료편). 서울: (사)대한출판협회, 2013년.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0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Francis K. W. Drury. Book Selec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30.

Gregory, Vicki L.. Collection development and management for 21st century library collections : An introduction.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2011.

Johnson, Peggy. Fundamentals of collection development & managemen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4.

▷ 논문

김상호,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서지학연구 29권 (2004년 12월).

이응봉, 정선옥. “공공도서관 서평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년 8월).

장지숙. “어린이 도서 서평 매체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17권 (2004년 4월).

윤정옥. “차세대 도서관 목록의 이용자 서평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권 2호 (2012).

▷ 참고서평지

출판저널문화미디어. 출판저널 463호. 서울: 출판저널미디어, 2014년.

학교도서관저널. 학교도서관저널 통권 45호.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2014년.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Booklist. vol. 1, no. 1.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05.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Booklist. vol. 106, no. 3.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The Booklist. vol. 110, no. 22.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4.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hoice. vol. 51, no. 12. Middletown: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14.

Library Journal. Library Journal. vol. 139. no. 13. New york: media source, 2014.

▷ 서평

오선경. "말을 삼킨 아이", 출판저널 463권 (8월 2014년): 68쪽.

이무현. "조선직업실록", 학교도서관저널 통권 45호, (2014년): 205쪽.

이지은. "우리에게 산은 무엇인가?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출판저널, 463권 (8월 2014년): 70쪽.

Edwards, John C.. "When Briatain burned the White House", Library journal, vol 149 no 13, (August 2014): p.204.

Hays, Carl. "Mars up close: Inside The Curiosity mission", Booklist vol 110 no 22, (August, 2014): p.23.

Jacobsen, J. P.. "Diveded: the perils of our growing inequality", Choice, vol 51 no 12, (August, 2014): p.2235.

Seaman, Donna. "The wayfinders: Why Ancient Wisdom Matters In the Modern World", Booklist vol 106 No 3, (October, 2009): p.12

▷ 인터넷자료

http://www.booklistonline.com/ ('북리스트' 웹페이지)

http://www.ala.org/acrl/choice/home ('초이스' 웹페이지)

http://lj.libraryjournal.com/ ('라이브러리 저널' 웹페이지)

http://www.kpipa.or.kr/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웹페이지)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5

장 려 상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공공도서관 역할 다변화를 위한 소장 자료 스펙트럼 확장 제안

- 자주출판물을 중심으로 -

홍 소 람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6

목차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논문 구성

공공도서관 장서의 문제점
1. 선정에서의 문제
2. 자료접근 및 구입에서의 문제
3. 결과
4. 소장 자료 스펙트럼 확장의 당위성

대안 – 자주출판물을 중심으로
1. 자주출판물 개요
   1) 개념
   2) 특징
   3) 가치
      (1) 다양한 시각의 정보 소통을 위한 대안 매체
      (2) 예술적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
      (3) 지역 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2. 자주출판물 유통과정
   1) 온라인
   2) 오프라인
3. 이를 통한 도서관과의 연계 가능성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
1. 기존의 소장 자료 차별화 시도: 전국특화도서관 중심으로
2. 자주출판을 통한 예시
   1) 지역 자주출판물 수집 및 자주출판물에 대한 피드백 거점
   2) 도서관의 지역 자주출판 제작 거점화
   3) 자주출판이 반영된 도서관 현장에 대한 시나리오
3. 정보자원 다양화를 위한 지원센터

결론 및 제한점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7

공공도서관 역할 다변화를 위한 소장 자료 스펙트럼 확장 제안

- 자주출판물을 중심으로 -

홍소람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3학년

요 약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 대상이 '공중'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관종의 도서관보다도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대변하는 자료를 수집해야만 한다. 이는 출판물의 유통구조가 자본에 영향력을 받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자료를 구입할 때 이용자의 요구와 서점의 베스트/스테디셀러를 적극 반영하는데, 두 요소 다 출판사와 유통사의 마케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사서가 이를 검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인력 부족 문제와 도서의 간접구입에 대한 의존도는 유통사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킨다. 따라서 정보자원에 대한 주도권을 출판계에 넘겨주며 공공도서관 간의 차별성과 소장 자료의 다양성은 악화된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정보자원은 문화를 다원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소장 자료의 내용적 측면에서 고려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장 자료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본고에서는 예시로 자주출판물을 들었다. 자주출판물이란 개인이나 자발적 소그룹이 기존의 출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제작한 제한 없는 주제를 가진 생산물이다. 철저하게 생산자 중심적인 제작 방식 덕분에 과감하고 색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이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활동 중심적인 커뮤니티 지향적 도서관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출판은 주류출판과 같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유통 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 제작자, 전문 서점 간의 유통이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유통 과정이 단절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효율적인 연결을 구축할 수 있다.

자주출판은 일원화되어 있던 출판 유통과정을 다원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수익 기반이기에 제한적이던 주제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자주출판의 유통구조를 도서관이 보조하여 주류출판에 대한 자극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매체를 자주출판이 아닌 비주류 정보자원 전반으로 확대시킨다면, 차세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관점의 자료에 대한 수요를 집중시킴으로써 가능성 있는 정보자원에 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수요를 가시화시킴으로써 정보자원 유통에서 도서관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류출판의 관점을 확장시킴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

키워드: 장서개발, 출판유통, 문화다양성, 자주출판, 독립출판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8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도서관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개념을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1]으로 정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 모두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기관이다.

하지만 그 전에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 우선적으로 '좋은 정보서비스'는 질 좋은 정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보자원의 질이 제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2] 즉, 소득, 교육수준, 직종 등이 다양한 이용자 계층에게 질 좋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소장 자료의 다양성, 특히 관점에 대한 다양성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소장 자료는 대부분 책, 즉 주류출판물로 한정되어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탄탄한 준비과정을 거쳤기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시각이 다면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익을 내야할 목적을 가진 생산물로서의 주류출판물은 대중성에 그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공도서관이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과연 '비주류', '소수', '소자본'에 기인한 시각까지도 대변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서들은 이용자에게 있어 공신력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굳이 '찾아가야 할 만큼'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도서관은 자료의 내용에서도, 그 형태의 측면에서도 도서관은 '책(주류출판물)을 좋아하는 (일부) 주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축소된 타이틀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용자를 맞아야 할까?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를 원할까? 각각의 공공도서관들이 정보자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마다의 개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서관의 근본 목적인 정보제공을 충족하면서 현대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역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존재하는가?

본고에서는 도서관의 정보자원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출판이 소장 자

1) 도서관법 제2조(정의). [online.] [cited 2014.09.0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02#0000>
2)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p.14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69

료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주출판물이라는 정보자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자 했다.

2. 논문 구성

본고에서는 먼저 현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도서 선정 및 구입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로 나누어 점검하고, 원인을 도서 유통에서 자본의 영향력에서부터 찾아보고자 했다. 책을 위시로 한 물리적 정보자원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이 대형 자본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관점으로 필자는 소장 자료 스펙트럼의 확장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다른 정보자원을 제공한다면 잠재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을 도서관에 유인하여 이를 가시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양성 있는 출판을 위한 매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서 자주출판물을 주목하였다. 현재 자주출판물은 대중의 창작 활동 및 출판에서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모호하고 정의가 명료하지 않아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대부분 디자인이나 예술적 관점에서 논해졌고, 정보자원으로서 분석한 논문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주출판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였다. 그 후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배경을 주류출판물의 유통구조와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에 비주류 정보자원이 편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을 예측하였다.

Ⅱ. 공공도서관 장서의 문제점

1. 선정에서의 문제

공공도서관 자료 선정에서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이 어떤 자료를 중점으로 소장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자료는 단연 책, 즉 물리적 인쇄자료가 차지한다.[3] 근래 웹 자원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입지가 약화 및 축소된 듯 보이지만, 도서관의

3) 2011년 전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관한 통계에서는 인쇄자료가 전체 소장자료의 91.4%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했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0

장서는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누적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데에서 여전히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4]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자원이 도서관에 자리 잡는 데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은 무엇일까?

강은영과 장덕현이 공립공공도서관 524개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들이 자료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가능성'이었다.[5] 이는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수서 업무를 할 때에도 잘 드러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선정도구는 '이용자 희망도서 목록', '관련 단체나 기관 발행 권장도서 목록', '서점의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받은 선정도구가 '서점의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이라는 것이다.

<표 1> 자료선정에 주로 활용하는 선정도구와 유용성[6]

자료선정도구	도서관수 (전체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유용성 평균* (응답 도서관 수, 개관)
관련 단체나 기관 발행 권장도서 목록	282(89.5)	3.78(313)
신문이나 잡지 등의 서평	246(78.1)	3.69(308)
이용자 희망도서 목록	298(94.6)	3.75(312)
권위 있는 문학상/학술상 정보	224(71.1)	3.84(307)
국립중앙도서관의 e-CIP나 납본주보	27(8.6)	2.86(238)
서점의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	284(90.2)	4.00(313)
출판사의 신간도서 목록	232(73.7)	3.39(300)

* 1 매우 미흡, 2 미흡, 3 보통, 4 유용, 5 매우 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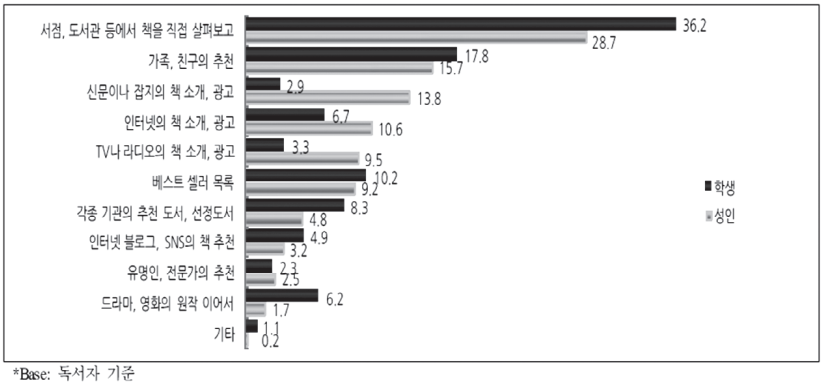
이는 곧 도서관 장서 구성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만큼이나 중요한 선정도구가 '서점의 베스트/스테디셀러 목록'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실상을 보자면 이 두 가지 선정도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에 이용하는 도구 또한 출판물의 유통과정과 깊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4) 윤희윤, 2009, 앞의 논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p.17
5) 강은영, 장덕현. 2012.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p.457-479
6) ibid. p.471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1

<그림 1> 도서 선택시 이용하는 정보(성인)[7)8)]

(단위: %)



*Base: 독서자 기준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서 선택 시 이용하는 정보에서 신문이나 잡지·인터넷·TV에서의 광고에 대한 비율을 합하면 33.8%로 오히려 가장 높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선정 도구인 '이용자의 요구'는 출판사의 마케팅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서점과 도서관에서 직접 책을 본다'고 답한 28.7%의 이용자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도서관이 책을 '베스트셀러를 반영하여' 수서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는 이용자의 시각에 자본이 간접적으로나마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는 단순한 판매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평가하기에 조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실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바로 '베스트셀러 조작', '책 사재기'에 대한 부분이다. 책 사재기 개념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92년이다.[9)] 이후 1997년 '도서신문'에서 현상을 집중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고,[10)] 2014년 현재에도 여전히 출판계의 암묵적인 병폐로 남아있다.[11)]

이를 통해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베스트셀러에는 분명 출판사의 자본력에 기인한 영향력이 녹아있고, 이용자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조작된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용자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베스트/스테디셀러의 목록 또한 크게 신용할 만한 평가 요소로 작

7)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1318호), p84
8) 3% 이하 제시 생략
9) 1992년 8월 24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대형서점에서 저자나 일부 출판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책을 20~40권씩 사들고 간다는 점을 짚어 순위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
10) 경향신문, 1997.12.8일자 기사, "베스트셀러 '조작세력' 꼬리잡혔다...도서신문 '사재기 현장' 보도"
1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은 이를 막기 위해 '출판물불법유통사재기신고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사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2

용하지 못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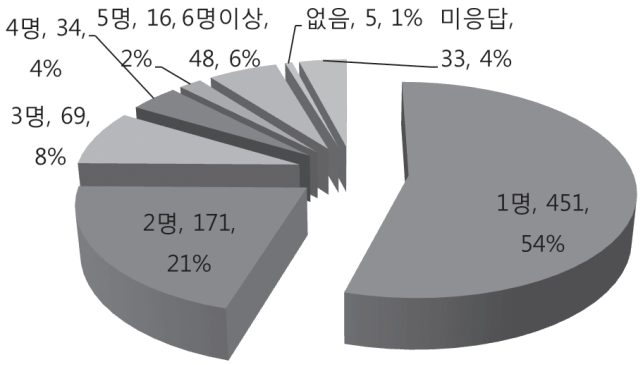
또한 이는 공공도서관 장서 구성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박옥화의 연구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입수하는 정보원으로 73%의 사서들이 대형 서점(온라인 서점 포함)이 제공하는 리스트를 꼽았다고 말했다.[12] 대형 서점들의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결국 도서관이 참고하는 목록이 겹친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도서관을 구분해주는 특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비슷비슷하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차후 소장 자료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내재적 원인이 될 수 있다.

2. 자료접근 및 구입에서의 문제

소장 자료의 선정 과정에 있어 대형 자본이 개입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방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우려'일 뿐, 드러난 문제는 아니다. 또한 사서들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박옥화의 연구에 의하면, 사서들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나[13]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별수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직접수서를 통하여 장서의 질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서를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현장의 사서 인력은 직접수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을까?

<그림 2> 자료선정 담당 사서직원수 현황[14]



12) 박옥화, 2011,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베스트셀러에 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p.15
13) ibid.
14) 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개선방안 연구", p.87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3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총 827개 공공도서관 중 622개 도서관에서 1~2명의 사서만을 자료선정에 개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제한된 인력으로는 신간의 구입에 바빠 장서구성과 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힘들다.[15] 또한 동일한 연구에 의하면, 일일실물수서시스템[16]을 도입하여 채택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39개관에 그칠 뿐이었다.[17] 결국 사서라는 전문 인력의 부족은 나아가 자료 선정과 축적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한다.[18] 대부분의 도서관이 선정도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한 인력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19] 또한 자료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강은영이 2013년 수행한 연구에서는 '전문유통업체', '대형서점', '지역서점' 등 간접구입이 전체 구입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경로들이 전체 구입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9%에 육박한다. 즉 책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중간 유통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친다는 것이다.

<표 2>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경로(복수 응답)[20]

구분	도서관수	전체 구입경로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도서관에서 차지하는 비중(%)
출판사를 통한 직접 구입	40	7.8	12.7
인터넷서점을 통한 구입	94	18.3	29.8
전문유통업체를 통한 구입	139	27	44.1
대형서점을 통한 구입	46	8.9	14.6
지역서점을 통한 구입	180	35	57.1
기타	16	3.1	5.1
합계	515	100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서관이 출판사·유통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1차적으로 선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선정도구를 이용한 후, 그 도서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범주 내의 유통사를 활용하게 된다. 이런 방식의 구매는 유통사의 구입 집계에 반영됨으로써 도서관이 차후 참고할 목록을 만드는 데 다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15) ibid.
16) 사서가 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도서관의 성격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신간 도서가 유통되는 즉시 도서관에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신속한 자료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ibid. p.97)
17) ibid. p.97
18) 강은영, 장덕현. 2012. 앞의 논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p.474
19) 강은영과 장덕현이 2012년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선정도구를 활용하여 선정업무를 실시하는 도서관은 278개관(88.3%)으로, 상당수의 도서관이 서지도구에 의존한 선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0) 강은영, 2013,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p.164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4

3. 결과

도서관과 출판계, 그리고 이용자는 책이라는 물리적인 정보자원을 중심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그러나 도서관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자료의 선정-구입 과정에 있어 간접적으로 밖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보제공에 있어서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형 출판사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출판사의 영향력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서관의 기치를 훼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 간의 차별성과 소장 자료의 다양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출판사의 자금력을 활용한 홍보, 대형 유통사들이 제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은 한정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 자료를 요청하며, 다수의 공공도서관 또한 이를 기반으로 자료를 선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장서들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핵심장서처럼 모든 도서관에 존재하게 된다.

결국 '이 도서관'과 '저 도서관'은 그저 서로 다른 '분관'의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곧 어딜 가나 천편일률적인, 대형 자본에 의한 출판물들과 소위 '주류'의 시각을 가진 도서들이 도서관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자료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도서관의 이미지와 가능성은 축소되며, 더욱 한정적인 기관으로 좁혀진다.

4. 소장 자료 스펙트럼 확장의 당위성

물리적 소장 자료의 문제는 그것이 특정 관점만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있다. 한정된 관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2001년 유네스코에서 발의한 '문화다양성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유네스코는 자본 기반의 문화적 세계화를 경계한다는 관점을 이 선언을 통해 여실히 드러냈다. 유네스코가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기호와 취향의 범위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문화의 공급에서는 그 다양성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현상을 걱정해왔다는 점에서 그 발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21)]

그렇다면 다양한 관점은 어떠한 측면에서 중요할까? 그 이유는 사회 안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양성은 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다양성 있는 정보자원은 시각을 다양하게 만들며,

21) 이산호, 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여름호: 28, p.304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5

이는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문화 스펙트럼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인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구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22]

결국, 다양성은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문화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는 반드시 갖춰야만 할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ALA의 도서관 권리장전에서는 "모든 도서관은 정보와 아이디어의 장"[23]이며, "도서관은 현재,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모든 관점을 대표하는 매체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24]을 주장하고 있다. 정보자원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그 관점에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것이 도서관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자본에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도서관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 본연의 가능성마저 축소될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정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도서관의 패러다임을 확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서관의 제한된 인력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소장 자료 스펙트럼의 확장에 그 답이 있다고 보았다.

왜 소장 자료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먼저 '도서관은 (일정한 관점의) 책만 있는 곳'이라는 이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정보자원을 받아들여 이용자들에게 이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이를 원하는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런 관점을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이제까지 웹 자원 등지로 분산되어있던 수요를 도서관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2차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도서관에 새로운 정보자원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도서관은 자원에 대한 수요를 가시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능성 있는 정보자원들은 투자를 받아 더욱 성장할 수 있다. 나아가 도서관은 그런 생산물들이 주류 유통구조에 편입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주류 정보자원이 실제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그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예시로서 자주출판물을 들었다. 자주출판물이 무엇인지, 실제로 다양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주출판물이 도서관에 포섭될 때 예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

---

22) 이산호는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을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례로 들었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에는 문화적 우월성을 전제하는 '동화주의'를 수용하며 문화다양성을 배제하는 관점을 취했다. 그러나 문화배타성과, 문화우월론에 기인한 낙관론적 시각은 결국 동화주의에 수용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 기인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문화다양성을 정책화시킨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을 제창하기 시작했다.

23) ALA homepage. [online.] [cited 2014.08.28.]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24) ibid.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6

Ⅲ. 대안 – 자주출판물을 중심으로

1. 자주출판물 개요

1) 개념

자주출판은 독립출판, 인디출판, 진(zine), 인디-진(indie-zine), 셀프 퍼블리싱, 스몰 퍼블리싱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제까지 일반적인 출판사업과 대별되는 의미의 출판에 대한 연구는 웹 자원을 이용한 디지털 퍼블리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물리적 소장 자료로서의 자주출판물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디지털 퍼블리싱에 관해서는 제외하고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범주가 모호하며 제작과 통제가 생산자 중심으로 자율적인 자주출판의 특성 상,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자추출판을 하나의 문화적 경향으로 보고 이를 소개하며 의의를 찾는 차원에서 주로 접근하였다. 또한 '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인디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이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디자인이나 문화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 대두된 자주출판 경향을 다루기 이전에, 다양한 논고들에서 규정한 자주출판의 개념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주출판을 정의내리고자 한다.

먼저 위키피디아에서는 self-publishing을 "공식적인 제3의 출판사의 개입 없이, 작품의 저자에 의한 도서·기타 매체 출판"[25]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경용은 독립출판을 "개인이나 소규모 공동체가 주로 발행하는 진(zine)이라는 장르의 소책자"[26]로 정의했다. 배두호는 독립출판을 "기존의 폐쇄적인 출판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컨텐츠에 필요한 기획, 제작, 편집, 출판 등의 필요한 공정들을 자신이 알아서 하는 ... 팬진 형태의 무가지나 예술 전시"[27]라고 명명하고 있다. 자주출판계와 인디문화적 관점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이 직접 수행하는 출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계에서 본 시각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아트북으로서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김앵아와 강현주는 스몰 퍼블리싱을 "출판의 전 과정을 개인 또는 소그룹 스스로 전담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기존의 유통망에 비해 독립된 수익구조를 가지는 작업"[28]이라고 정의하고 디자이너의 생산물에

25) wikipedia. [online.] [cited 2014.09.13.] <http://en.wikipedia.org/wiki/Self-publishing>
26) 임경용, 2010, "소규모 자주출판으로부터 찾는 문화적 가능성", 플랫폼: 23. p.17
27) 배두호, 2010, "인디는 없다", 레프트대구: 1. p.265-266
28) 김앵아, 강현주. 2010, "디자이너의 스몰 퍼블리싱이 문화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학연구: 23-4. p.108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7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정선아는 근래의 자주출판 경향을 문화예술영역이 주로 주도하는, 제한 없는 주제의식을 가진 대안적이고 독특한 이미지 위주의 간행물 혹은 아티스트북 제작 움직임으로 평하고 있다.[29]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기존의 출판 사업과 자주출판의 특징을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일반 출판사업과 자주출판 비교

구분	일반 출판사업	자주출판
자본	대규모	소규모
제작주체	기업	개인·자발적 소그룹
생산물의 공유과정	공식적	비공식적
구성	텍스트 중심 ↔ 이미지 중심	

즉 자주출판은 개인이나 자발적 소그룹이 기존의 출판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제작한 제한 없는 주제를 가진 생산물로 규정내릴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한 출판물들이 기존의 출판 유통 시스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이는 곧 자주출판이 자유로운 주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출판 경향을 정의내리는 다양한 용어 중 이런 특징을 행위적으로 명확히 표현한 '자주출판'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2) 특징

용어를 정의하며 말했던 바와 같이, 자주출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모든 행위가 철저하게 '개인'의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발생했던, 근대 최초의 자주출판과 연관된 운동이 '개인출판 운동'이라 명명된 바에서도 활동의 주체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주출판이 초점을 맞추는 개인은 소비자로서가 아닌 생산자로서의 개인이다.

임경용은 현재 자주출판이 보이는 모습을 "외부를 욕망하고 그 밖을 희망하는 개인들의 솔직한 움직임"[30]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인간에게 내재해있는 자기표현과 창작의 욕망이 집합적으로 표출되는 결과물로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주출판에서는 '외부를 욕망하듯', 의견을 사회적으로 표출하는 움직임도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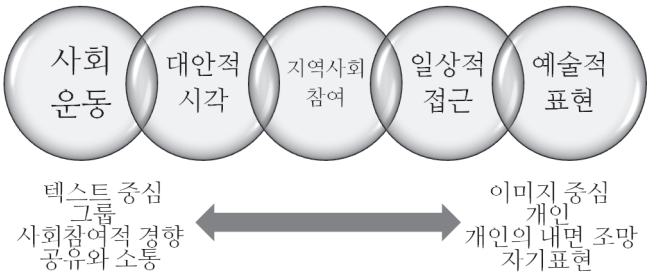
실제로 자주출판물에서 주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이 같은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정선아는 디자이너들이 생산하는 자주출판이 "공적이고 사회적인 주제를 개인적으로 풀어나가는 식의 작업방식"[31]

29) 정선아, 2010, "한국 자주출판물에 대한 연구 - 2008-2010년의 디자이너-제작 출판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2010 디자인통합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22-23
30) 임경용, 2010, 앞의 칼럼, 플랫폼: 23. p.20
31) 정선아, 2010, 앞의 논문, 한국디자인학회 2010 디자인통합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23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8

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단 디자이너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주출판 생산자들에게 유사하게 드러나는 작업방식이다. 이러한 경향성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자주출판물의 주제 접근 경향



크게 대별하여 보자면, 자주출판 내에서도 지식운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텍스트 중심적인 출판 경향과, 예술의 표현 방식으로서의 이미지 중심적인 출판 경향 등 유사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견 서로 상반되는 구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가 구분되어있지 않고 서로 상관적인 연속성을 띤다는 것이다. 도식 상으로는 극과 극으로 표시된 사회운동적 경향과 예술적 표현 역시 하나로 엮일 수 있다는 점이 자주출판의 특징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까지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호를 표현하는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생산행위 자체가 다양성에 대한 수요를 방증하는 것이다.

> *출발지와 도착지 중간에 오르는 버스에서의 시간은 소중한 일상 중 일부이지만 아쉽게도 쉽게 기억 속에 사라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현대의 서울 버스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는 있습니다! 이것이 Thinking Bus 프로젝트의 탄생의 이유이며, 이것이 저희의 무가지 그 자체입니다.*[32]

이 인용문은 서울 버스를 주제로 한 자주출판 간행물 'Thinking Bus' 제작자의 인터뷰이다. 여기에서 기존에는 버스라는 공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있음에도 기존에는 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접근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탄생한 자주출판물이 수요를 가지고 있음은 다음 인용문에서 잘 나타난다. "MMMG[33]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먼저 배포해달라고 요청해주

32) 헬로인디북스 'Thinking Bus' 팀 인터뷰. [online.] [cited 2014.09.23.] <http://www.hello-indiebooks.com/portfolio/item/thinkingb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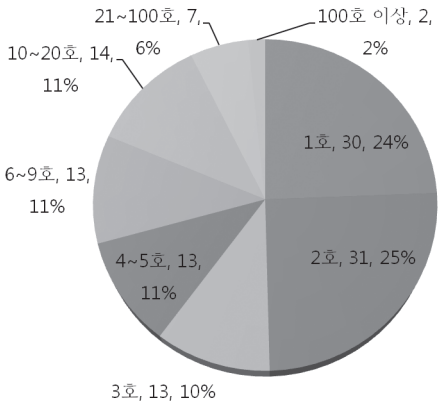
33)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시작하여 작은 물건으로부터 가구에 이르기까지, 라이프 스타일 전반의, '진심을 담은 브랜드'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확장된 디자인소품 매장. 2곳의 직영매장과 온라인 마켓을 운영 중이다. (밀리미터밀리그람 홈페이지 발췌. [online.] [cited 2014.09.23.] <http://mmmg.net/mmmg-history/>)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79

셨고, …(중략)… 요즘도 서울 외 타 지역 분들이나 카페 대표님들에게서도 받아보고 싶다는 연락, 그리고 비치하고 싶다는 연락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34]

즉 자주출판에서 생산자들은 자신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요구를 직접 생산하면서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어떤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색다른 관점에 대한 갈증이 존재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과 이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는 것과는 반대로, 자주출판물은 발간에 있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주출판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 3곳의 국내 잡지 123종을 기준으로 발행호수를 분석해본 결과 59%인 74종 잡지가 3호 이하로 발간되었으며, 10개 미만은 100종 잡지로 81%에 육박했다. 100호 이상 발간된 잡지도 2종이었으나, 하나는 소식지로서 무료배포되는 무가지의 형태였다. 다른 하나는 대안 운동 단체에서 발간하는 어린이 교양지로 알라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도 제공되고 있어, 이미 주류 출판 유통구조에 편입되어 지속적인 발간을 위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는 잡지로 보인다.

<그림 4> 비정기 자주출판물 발행부수[35]



시작이 개인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나 취미에 의한 것일지라도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익이 있고, 그로 인한 생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주출판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출판 시스템에서 탈피하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 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4) 헬로인디북스 'Thinking Bus' 팀 인터뷰. [online.] [cited 2014.09.23.] <http://www.hello-indiebooks.com/portfolio/item/thinkingbus/>

35) 자주출판 전문 온라인 서점 유어마인드, 스토리지북앤필름, 더북소사이어티에 입점된, 국내에서 발행된 잡지 형태의 간행물 123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4일 조사를 수행하였다. 발행호수는 가장 최근 호수의 이슈 번호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0

이 외에도, 출판물의 소재가 생산자의 자율적인 발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속성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원인일 수 있다.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발행 기간이 비정기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출판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가 사양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점을 개선해서라도 '자주출판물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자주출판이 자기표현과 더불어 다양성에 대한 수요에서 제작 동기를 찾을 수 있다면, 이제는 자주출판물이 보이는 다양성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이다.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에서도 요구론과 가치론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듯, 자주출판물이 실효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자주출판물의 가치

(1) 다양한 시각의 정보 소통을 위한 대안 매체

이런 시각은 이미 80년대의 지식운동과 무크지 발간 등을 통해 가장 잘 알려진 가능성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가 2000년대 이후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화된 예술 등의 표현방식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식 자료들이 다수 발간되고 있다. 또한 자주출판은 생산자들 사이에 출판을 주제로 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자주출판의 문제 중 하나가 질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발간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면, 이러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출판사 '미디어버스'이다. 미디어버스는 자주출판 전문 서점인 더북소사이어티의 운영자가 만든 소규모 출판사로서 "진과 아티스트의 출판 및 유통 일을 하며 전시 및 행사, 워크숍 등도 기획하고 있다."[36] 이렇듯, 미디어버스는 기존의 출판 사업과 다른 출판 플랫폼을 목표로 한 출판사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자주출판이라는 개념이 다시 정립된 지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본 플랫폼의 전문가가 이미 존재한다. 이 '자주출판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질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타입인 정보매체를 제작할 수 있다. 이는 자주출판에서 제대로 된 기획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치 있는 생산물을 만들 수 있음을 방증한다.

(2) 예술적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

36) 미디어버스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4.09.17.] <http://mediabus.org/About>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1

자주출판에서 주로 접근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업이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출판에 흥미를 가진 개인이 일상이나 흥미와 결부된 부분을 풀어놓는 경우이다. <표 5>는 국내 자주출판물 중 일부의 키워드이다.

<표 5>에서 보면, '일러스트'나 '그림언어', '만화' 등 예술군에 속하는 직업에서는 이를 작업 겸 포트폴리오로 여기며 출판물을 제작한다. 이들에게 작품은 예술활동의 일부분이다. 이렇듯, 현재 활동하는 작가의 '유통되는' 작품은 현대 미술 및 지역 예술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개인의 기록이다. <표 5>의 키워드에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평범한 주제일지라도 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면적이다. 사회를 해석하는 개인의 시각이 출판물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되고 녹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출판물이 우리 생활의 미시적·감정적 측면에 관한 기록 자료로도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표 4> 자주출판물 잡지별 키워드[37]

잡지명	키워드	잡지명	키워드
play in the world	여행, 사진	엄마노트	이야기(엄마의 글)
명랑여행용품전	여행용품	월간 잉여	잉여
토끼도둑 일러스트레이션과 드로잉	일러스트	magma8	만화
grimm magazine	그림잡지	July come she will	노처녀, 연애, 결혼
9여친 1집	연애, 이별	ICELAND TRAVEL	여행, 사진
avec	사람(문화, 생활방식)	인덱스오브 #1	경복궁, 이미지
magnetic	그림언어	TOGOFOGO	사진, 여행
그냥순두부	고양이, 사진	인디 요리터	음식, 문화
BOX	6각형 그림책	리콜렉션	사진
도시의 기분	애니메이션, 서울, 인터뷰	그린마인드	자연, 환경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구부릴 수 있는 사람	소설	냄비받침	내적자신감 회복
녹록지X	영화비평	록셔리	일상(코미디)
samesame	사람, 자연, 동물	Thinking Bus	서울버스
올드림	환상소설	사표	사표
1인극 여행	여행	밥	밥

37) 자주출판 전문 서점 '헬로 인디북스'의 온라인 홈페이지(기준 날짜: 2014년 9월 17일)에 수록된 제작자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상기의 잡지명은 제작자의 작품 중 키워드가 가장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출판물을 선정하여 기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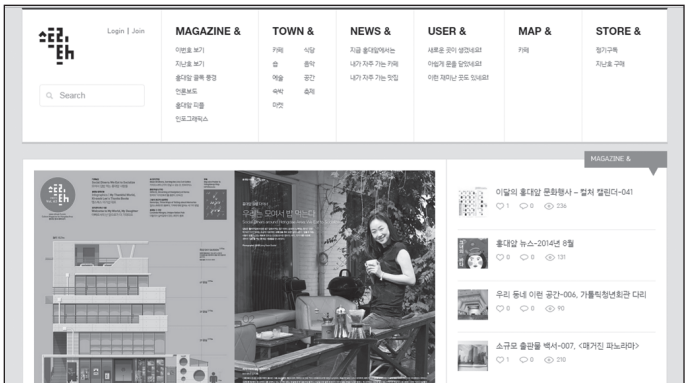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2

(3) 지역 사회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나아가 자주출판물은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제작한 자주출판물인 지역잡지가 그것이다. 그 가치를 하나는 잡지를 만드는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강화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생활정보에 대한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공동체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 주민들이 활동의 목적에서 자주출판을 활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013년부터 제작된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의 '난지실 마을에 둥지를 틀다'라는 잡지는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잡지다.[38] 경기·수원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지 '사이다'의 경우 한 부당 5000부를 찍을 정도로 수요가 높다는 점이 입증되었다.[39] 또한 생활밀착형 지역정보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원에서의 공유 지식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힘들어 생활 거주민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알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동네잡지는 주거지 이동 등을 통해 지역에 온 새로운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쉽게 녹아들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되어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그 지역의 생동하는 역사를 꾸준히 기록해 왔기 때문에 지역사 연구 사료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5> 홍대 동네잡지 '스트리트 H' 홈페이지[40]



대표적인 예로 <그림 5>의 홍대 동네잡지 '스트리트 H'가 있다. 홍대의 없어지는 가게와 생겨나는 가게를 기록함으로써 홍대 주변 상권에 대한 아카이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이 모여

38) 뉴스1, 2013.10.17일자 기사, "이웃과 소통하는 '동네잡지' 전성시대". [online.] [cited 2014.09.14.] <http://news1.kr/articles/?1365979>
39) 이투데이, 2014.3.28일자 기사, "[출판]작지만 강한 '동네잡지'의 아우성". [online.] [cited 2014.08.28.]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1974>
40) 스트리트 H. [online.] [cited 2014.09.18.] <http://street-h.com/>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3

장기화되었을 경우, 지역에 관한 연구 및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자주출판물은 그 수요와 가치의 면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주출판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자주출판물이 소비자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자원의 능동적 활용은 정보요구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 자주출판물의 유통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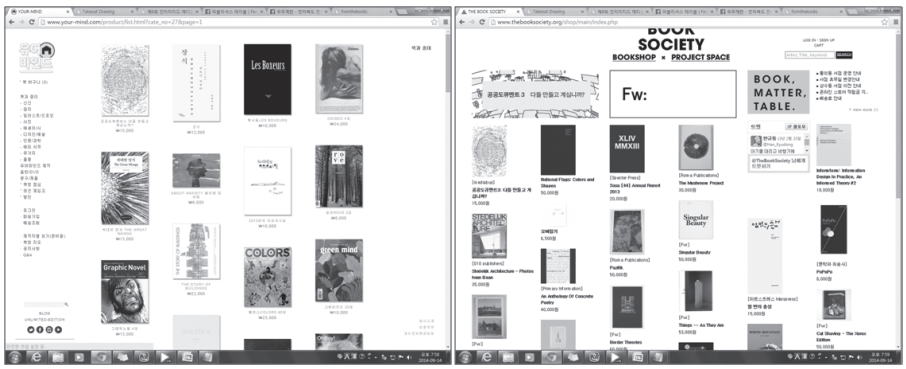
2. 자주출판물 유통과정

1) 온라인

온라인에서의 유통은 제작자가 블로그나 SNS, 웹사이트 등을 이용해 직접 홍보 및 판매를 맡는 방식과, 자주출판 전문서점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위탁판매 방식 2가지로 나뉜다. 제작만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인 출판사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자의 직접 판매가 가능하며, 유통사라고 할 수 있는 자주출판 전문서점과의 계약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자주출판 전문 서점이 웹사이트를 두고 있지만 출판물의 온라인 판매보다는 오프라인 매장과 출판물의 홍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현재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출판물을 판매하고 있는 자주출판 전문 서점은 유어마인드, 더북소사이어티, 스토리지북앤필름, 샵메이커스, 프롬더북스 등 5개이다. 이들 서점은 모두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도 자주출판 전문 서점을 두고 있다.

<그림 6> 자주출판물 전문서점 유어마인드(좌), 더북소사이어티(우) 온라인 웹사이트[41) 42)]



41) 유어마인드 [online.] [cited 2014.09.14.] <http://www.your-mind.com/>
42) 더북소사이어티 [online.] [cited 2014.09.14.] <http://www.thebooksociety.org/>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4

온라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어마인드의 경우 "오프라인 책방 오픈 초기에는 온라인8 : 오프라인2 정도였지만 오프라인을 운영한지 2년이 지난 지금은 온라인6 : 오프라인4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 있다."[43]고 한다. 오프라인 매장의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실제로 온라인만으로 운영되는 자주출판 전문 서점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주출판물에 있어서 온라인의 유통과정은 주로 홍보를 위한 수단이자 오프라인의 판매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자주출판물의 주요 유통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자주출판물이 어떻게 유용되는지를 파악해야한다.

2)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유통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행사 등을 통해 개인 제작자가 직접 참가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자주출판 전문서점이나 카페 등지에 위탁판매를 요청하는 것이다.

소규모 자주출판물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대표적으로 '퍼블리셔스 테이블', '언리미티드 에디션', '세종예술시장 소소', '어바웃북스' 등이 있다. '퍼블리셔스 테이블'과 '언리미티드 에디션', '세종예술시장 소소'의 경우, 자주출판 전문 서점들이 연합하여 주최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들은 제작자가 직접 부스를 차리고 판매를 담당하게 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 1대 1 교류를 도모한다.[44]

'어바웃북스'는 기업에서 주최하는 기획 전시로서, 제작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아 작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기회는 행사들보다 적은 편이다. 그러나 대형 후원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대중들에게 작품을 홍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2개월간의 장기 전시이므로 노출 기회가 상기 행사들에 비해 길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러한 행사들은 자주출판에 대해 잘 모르는 대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자주출판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판매 경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매개가 바로 자주출판 전문 서점이다. 많은 제작자들이 전문 서점에 위탁판매를 요청하며 이를 통해 책을 생산할 수익을 마련하고 있다.

자주출판의 특징은 위탁판매에 있어서 중간 배본사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이다.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전문 서점에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서점들을 대상으로 직접 요청해야한다. 대개 그 과정은 이메일로 간략한 소개 및 이미지를 보내거나,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 제품 입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유어마인드의 입점 절차에 관한 FAQ이다.

---

43) 유어마인드 블로그. [online.] [cited 2014.09.14.] <http://yourmind-bookshop.com/faq>
44) 언리미티드 에디션. [online.] [cited 2014.09.14.] <http://unlimited-edition.org/?p=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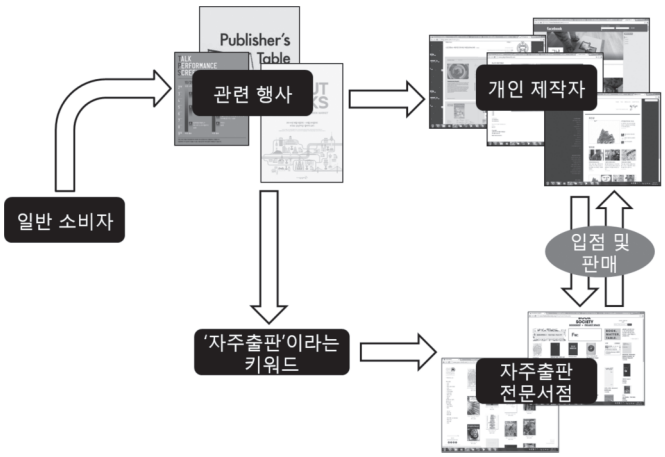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5

Q. 소규모 출판물, 음반, 문구를 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점을 위해 출판사 등록과 ISBN이 필수적인가요.

A. ym@your-mind.com으로 간략한 소개 및 이미지를 보내주시거나 서교동 오프라인 책방 영업시간 중에 직접 오셔서 샘플을 보여주시면 입점절차를 진행합니다. 입점에 대한 모든 진행은 서적, 음반, 문구의 제작이 완료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제작 전이나 구상 단계에서 입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출판등록 및 ISBN이 없는 서적도 입점 가능합니다.[45]

이와 유사하게, 더북소사이어티에서는 "입점된 책은 위탁 판매로 진행되며, 공급요율은 정가의 70%, 책을 입점할 경우, 입점 품목과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와야 한다."[46] 고 입점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자주출판 전문 서점들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유통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리적인 제약조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주출판 전문 서점이 수도권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47] 결국 지방에서 출판을 할 경우 온라인 판매에만 집중하게 되어, 다소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7> 자주출판을 모르는 소비자의 자주출판물 접근 경로 모식도



45) 유어마인드 블로그. [online.] [cited 2014.09.14.] <http://yourmind-bookshop.com/faq>
46) 더북소사이어티 입점문의 가이드라인. [online.] [cited 2014.09.14.] <http://www.thebooksociety.org/shop/main/html.php?htmid=about/submission.htm>
47) 대안 소비를 위한 장소 공유 사이트 바이왓유빌리브(http://www.bwyb.net/)에 등록된 26개의 자주출판 서점 중 18개가 서울 및 경기도 등지에 위치해있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6

다음의 모식도는 '자주출판'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소비자가 어떻게 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로에서 알 수 있듯, 애초 '자주출판'을 모르는 소비자가 관련 출판물들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관련 행사뿐이다. 이는 자주출판의 생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자주출판물은 개인이 생산과 제작 및 모든 분야를 전담한다는 점에서 주제와 내용, 형태적인 면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유통의 측면에서 소비자와 단절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중간자 역할을 하는 자주출판 전문 서점이 존재하며 매개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입점 방식이 따로 배본사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 제작자가 직접 개별 서점마다 찾아가는 방식이기에 유기적인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3. 이를 통한 도서관과의 연계 가능성

자주출판물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산으로 인한 질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매체이다. 그러나 자주출판물의 자유로운 생산은 동시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주제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유통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배포 및 유통이 번거로워진다. 그 결과 금전적인 문제 혹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발간 지속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출판 제작자들이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창작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또한 생산자에게 일일이 요청을 받아야 하는 입점 구조에 있어서도 고정적 매개가 존재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작자와 소비자, 그리고 전문 서점 간의 관계를 매개해줄 존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여기에서 공공도서관이 자주출판물을 포섭할 여지를 찾을 수 있다. 제작자와 서점, 그리고 이용자를 연결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바는 일종의 '구심점'으로서의 도서관이다. 먼저 공공도서관은 주류 출판물에서 얻지 못하는 다양한 관점의 출판물을 획득하여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다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색다른 시각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48], 소비자를 원하는 제작자, 이 양쪽을 동시에 알고자 하는 서점 간에 만날 수 있는 물리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8)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자는 자주출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잠재적 이용자를 일컫는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7

Ⅳ.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

1. 기존의 소장 자료 차별화 시도: 전국특화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계 역시 도서관 간의 차별성을 두는 데에 있어 많은 부분 고심해왔다. 공공도서관의 장서 특성화는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문제이다. 조찬식이 2008년에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공공도서관 특성화 접근은 크게 자료중심 특성화와 서비스중심 특성화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료중심 특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소장 자료 차별화 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 예시로 국가에서 지정한 전국특화도서관의 예시를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1998년부터 분야별로 특화도서관을 지정하여, 각 도서관에서 관련된 전문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표는 전국에서 지정한 특화도서관들이다.

<표 5> 전국특화도서관 현황[49]

시도명	도서관명	특화분야	지정년도	운영현황[50]
부산	금정도서관	영상자료	1999	2002년 종료
대구	중앙도서관	섬유산업	1999	2008년 관리전환
인천	화도진도서관	계향문학	2000	존재(향토개향문화자료관)
광주	산수도서관	미술	1998	존재(미술자료실)
대전	한밭도서관	과학기술	1999	2002년 디지털정보센터 합실
경기	남양주시도서관[51]	실학	1998	존재(실학박물관도서관)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애니메이션	1998	확인불가
충북	제천도서관	의병활동	1999	존재(의병도서관)
충남	부여도서관	백제역사문화	1998	존재(백제자료실)
전북	전주시립도서관	국악(판소리)	1998	존재(완산도서관 종합자료실)
전남	나주시립도서관	마한역사문화	2000	확인불가
경북	경주시립도서관	신라역사문화	1998	존재(경주특수자료)
경남	창원시립도서관	공업환경	1999	존재(의창도서관 환경자료실)
제주	서귀포시립도서관	관광	2000	존재(중앙도서관 관광자료실)

49) 광주광역시립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citylib.gwangju.kr/main/sub.php?mno=190>

50)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2014년 9월 18일 기준으로 참고하여 운영 현황을 확인해 인용한 표에 합하였다.

51) 본표에는 '남양주미금도서관'이라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현재 명칭이 바뀌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8

이 도서관들은 주로 자료실의 형태로 특성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도서관의 경우 자료를 더 이상 운용하지 않거나 관리주체를 전환해 자료를 이관하고, 단순 정보센터로 합실하거나 특화 분야를 따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특성화 경향을 약화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 자료는 그 주제가 크게 역사, 산업분야, 향토문화, 영상 및 예술로 지역주민 비친화적인 성향을 띤다. 그 형태 또한 대부분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친화적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부분에서의 지역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 즉 활용도가 '연구자'라는, 지역 주민 일부에게 치우쳐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찬식은 이에 대해 "자료중심의 정보제공에 있어서 전문주제 자료실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작아 많은 양의 주제 자료를 얻기 힘들고, 열람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료 이용에 제한을 갖게 된다."[52]고 설명하며 소장 자료 특성화 부분에서의 일방향적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은 지역 사료로서 가치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강좌 등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 또한 공공도서관의 소통을 일방향적으로 만듦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을 수용자의 위치로 한정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미 능숙한 정보수집가인 지역사회 구성원을 도서관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인가? 출판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는 주류출판물과 일방향적 소통을 전제하는 특화자료들로는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본다.

결국 공공도서관은 앞으로 이용자의 내재된 지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동적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자주출판은 도서관의 소장 자료 스펙트럼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를 구가할 수 있는 예시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비주류 정보자원을 공공도서관에 수용함으로써 어떠한 역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자주출판을 중심으로 구상해본 예시이다.

2. 자주출판물에서의 예시

1) 지역 자주출판물의 수집 및 자주출판물에 대한 피드백 거점

자주출판은 현대에 들어서 '책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화' 경향을 거쳐 왔다. 그 결과 지적자원을 풀어내는 형태라기보다 스타일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류출판물들과 비교했을 때 기획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거쳐야 할 필요가 대두된다.[53] 그러나 주제가 폭이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52)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p.173
53) 배두호, 2010, 앞의 칼럼, 레프트대구: 1. p.266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89

도서관에서는 자료가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생산자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류출판물의 경우에는 홍보를 통한 소통과 피드백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만, 자주출판물의 경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홍보 수단이 개인 웹사이트 및 SNS 등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과 홍보의 장을 도서관에서 마련한다면 이용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주출판물은 기존의 자료와 같이 자료 선정에서 품질 및 검증을 위한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의 역할 다변화가 필요하다. 자원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이를 받고, 검토하는 것이 아닌, 도서관의 방향성을 정하는 기획자로서의 사서의 역할이다.

생산된 자주출판물을 입수하고,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도서관 현장 기존의 문제(사서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실제적 자료 검증을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그러나 '공신력'이 목적이자 근간인 도서관에서 자료의 질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따라서 도서관은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을 포섭하고, 이들과 자주출판물 생산자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도서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서가 장서의 질을 검토할 수 없었던 것은 자원의 유통에 대한 주체가 도서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서관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고, 자신의 공신력을 '베스트셀러', '권장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서관이 자주출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직접 자원 생산의 중심이 된다면 사서는 어떤 자원을 생산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수용하여 제공할 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자주출판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주출판의 경우 상기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미 많은 경험자와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주로 자주출판 유통을 맡은 소위 '서점 주인'은 자주출판 워크숍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강사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훌륭한 피드백 요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54]

따라서 사서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는 매개이자 도서관의 방향을 정하는 기획자로서 활동하며 자료의 생산과 유통, 소비, 재생산의 과정에 걸쳐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한다.[55] 즉 도서관에서는 자주출판 피드백을 위하여 정기적인 '진 페어(zine fair)'를 열 수 있다. 다만 기존과는 다른 접근, 요컨대 보다 작품 자체에 대한 토론과 대담이 집중된 형태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대학 교수 및

54) 자주출판 전문 서점 스토리지북앤필름에서는 제작자들을 초빙하여 2014년 5월 7일부터 6주간 '리틀 프레스'라는 자체적인 자주출판 제작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부산독립출판연구소에서는 '스몰 북 워크샵'과 '메이커즈 북 워크숍' 등을 각각 2회 진행한 바 있다. 문지문화원 사이에서는 북디자이너, 자주출판 전문 서점 운영자 등의 인력을 모아 2008년부터 '진 메이킹 워크숍', '동네잡지와 함께 잡지 만들기', '내가 원하는 책 만들기' 등의 강좌를 진행하였다.

55) 노영희, 2014, 앞의 논문, 정보관리학회지: 31-1, p.55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0

자주출판 전문가, 나아가 지역 인사들과 사서 본인에 이르기까지 공청회 형식을 띤 도서관의 자주출판 진 페어(zine fair)는 제작자들에게 훌륭한 피드백이자 자극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피드백의 장이 열린다면 이용자 역시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이용자에게 자주출판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이용자들 또한 새로운 포맷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잠재적인 자주출판물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도서관의 지역 자주출판 제작 거점화

나아가 새로운 제작자가 될 잠재적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은 자주출판 생산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자주출판물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도서관의 정보자원화시키는 과정이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주류출판물과 같은 유통 과정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출판물과의 유통 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해 기존 유통의 문제점인 제작자와 이용자, 제작자와 서점, 서점과 이용자 간의 매개 부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도서관은 어디에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출판'이라는 고유명사에서 오는 폐쇄성 및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자주출판이라는 경향이 하나의 문화적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된다면, 보다 폭넓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상업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으나 질이 좋은 책에 출판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출판의 과정과 형태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한테 소개해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데에서 이러한 활동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56]

종합하자면 이를 통해 출판 유통 과정에 포섭되지 않는 소규모 자주출판물들을 포섭함으로서 도서관의 질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한 자발적인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능동적인 활동 중심의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지역의 자주출판물을 생산함으로서 차별성이 없는 공공도서관들에 소장 자료 특화성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자료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간에 자주출판 컨소시엄을 구축한다면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자관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자주출판물을 홍보하고 그 것을 서지사항으로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목록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다. 자원의 축적이 진행되면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자와의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며 주제 특성화된 도서관이 지역을 넘어서 서로의 자주출판 생산물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류출판사에서도 가능성 있는 출판 기획을 발굴해내어 주류출판물로 가공하여 생산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56) 노영희, 2014, 앞의 논문, 정보관리학회지: 31-1, p.65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1

3) 자주출판이 반영된 도서관 현장에 대한 시나리오

상기에서 자주출판이 도서관 현장에 반영될 때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을 살펴보았다.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이러한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조망해보았다.

A씨는 근래 자주출판물을 내게 되었다. 퇴근 후 B공공도서관의 열람실에서 우연히 특이한 책을 보게 되었던 것이 계기였다. 도서관이 자주출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개최한 자주출판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번에 개최되는 자주출판 워크숍은 A씨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지역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자주출판 워크숍이었다. A씨는 지역 한옥에 관한 책을 내고 싶어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떤 내용의 책을 만들지 워크숍을 주최한 사서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는 도서관에 소장된 한옥 관련 책들과 지역 관련 정보 등을 소개받아 책을 낼만한 지식을 쌓아나갔다. 워크숍을 주도하는 자주출판 전문가와 책의 구성 및 내용을 상담하며,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스케치, 정보 등을 활용해 지역 한옥에 대한 책을 만들었다.

워크숍이 끝난 후 B도서관에서는 책 출간 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관심 있는 도서관 이용자들과 관련 주제 전공 지역대학 교수, 지역 인사 등이 찾아와 책에 대해 조언하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A씨의 책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서, 건축물에 대한 자주출판물을 수집하는 타 지방의 C도서관에도 책을 보내게 되었다. 50부 소량 출판을 한 A씨의 책은 전국 각지의 자주출판 전문 서점으로 배포되었고, 금세 품절되었다.

얼마 후 A씨는 한 유명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공공도서관 자주출판 컨소시엄 홈페이지에 올라온 A씨의 책을 보고 구해 읽었는데, 질적으로도 좋고 아이디어도 신선하여 이를 보완해서 정식 출판물로 제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흔쾌히 수락하였고, 그의 작품은 정식으로 출간되었다.

A씨와 함께 워크숍을 들었던 D씨 역시 동일한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사진'을 주제로 한 자신의 책을 특별하게 가공하고 싶어 하지 않아 제안을 거절했다. 그 후 우연한 계기로 D씨가 만든 자주출판 사진집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지자, 많은 이들이 이를 보기 위해 B도서관에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2

3. 정보자원 다양화를 위한 지원센터

도서관은 인력이나 재정 등의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주류출판사의 마케팅에 불가결한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수익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지켜야만 하는 관점과 질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각 일원화의 문제는 결국 책을 소비하는 독자, 그리고 그를 선정기준으로 삼아 자원을 축적하는 도서관이 고스란히 품게 된다.

여기에서 궁극적인 문제는 책이라는 출판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일견 당연해보일 수 있는 말이지만, '유통 구조'라는 것은 자원의 소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자원의 소통이 수단에 의해 제한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주출판은 하나의 대안이 되어줄 수 있다. 철저히 생산자 본위로 움직이는 자주출판의 유통구조는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그리고 오로지 그 것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정보자원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를 단순히 수용자의 입장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주류출판물보다 더욱 강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자주출판은 기존의 출판 모델을 견제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여 출판계 전반에 자극을 줌으로써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차세대 도서관의 모델을 구현해볼 수 있다. 전문가, 소비자, 생산자로 구성된 콘텐츠 생산 사이클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도서관이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콘텐츠란 거대 자본 위주의 유통 구조에서 벗어난 다양한 생산물을 의미하며, 도서관의 역할은 이를 포섭하여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자주출판을 예시로 보았듯, 분명히 다양한 관점에 대한 수요는 존재한다. 다만 그러한 관점의 문제점은 정보요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즉 표현하는 키워드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경우 정보자원에 접근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자주출판에서는 관련 키워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57]가 관련 행사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공간적으로 지극히 제한된 접근으로 보인다. 즉 자주출판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어 실효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은 모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다. 도서관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접할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주는 매개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은 특이하

57) 지인이 자주출판물을 생산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나,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매장 등을 접하게 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고 가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3

고 흥미로운 정보자원들을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여 그 수요를 가치 있는 수준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다. 즉 도서관은 수요에 대한 '공중'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자본을 가진 출판사가 가능성 있는 생산물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기존의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기획된 자료들이다. 검증을 거친 '주류'로 보다 넓은 차원에서 확장되고, 제공된다면 주류 출판계 자체에서 다양성을 띤 관점을 포섭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해진 출판물을 수서를 통해 다시 도서관에 유입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도서관을 진정한 정보의 중앙 거점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V. 결론 및 한계점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다. 그 중에서도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즉 '공중'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기틀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발달에 뒤쳐져지지 않으면서도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지켜야만 한다.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포맷의 정보자원이 생산되어왔다. 이용자들은 이미 이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여전히 '주류출판물'이라는 한계에 매여 있다면,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주류출판물은 수익을 내야한다는 측면에서 대중성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 이를 걸러내는 것이 사서의 역할이지만, 현실적인 인력 부족의 문제는 출판사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서관의 관점을 한정적으로 제한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관점의 다변화가 가져오는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는 사회통합의 불가분적 요소이다. 이는 다시 말해 다양성 없는 시각의 고착화가 가져올 위험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요구론적 측면에서도 한정된 관점은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이용자들의 요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관점의 다양성이란 측면은 도서관에서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요소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공공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많이 도서관에서 포섭한다면 이는 도서관에서 보장해야만 하는 관점 다양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예시로 본고에서는 자주출판물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이나 자발적인 소그룹이 자신의 시각과 지적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자주출판물은 기존에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궤를 달리하는 시각에서의 정보를 제공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4

해줄 수 있는 정보자원 중 하나이다.

이런 비주류 정보자원의 특성은 그 유통구조가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웹상으로 자주출판 전문 인터넷 서점, 진 페어(zine fair), 개인 생산자의 블로그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키워드를 알지 못하거나, 진 페어 등의 행사와 우연적으로라도 마주치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이런 자원을 알고 이용하고 향유할 확률은 희박해진다.

여기에서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이 대두된다. 다양성 있는 출판물이 주류출판물에 비해 공식적인 루트로 출간되지 않는 이유는 이에 대한 수요가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같이 지속적이고 항상성을 띤 공간은 비주류 정보자원을 수용하여 소개함으로써 이러한 수요를 가시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능성 있는 정보자원에 자본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을 주류출판의 유통구조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획일화된 관점의 주류출판물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도서관의 질적 편향성에 대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성에 관한 수요를 측정하는 기관으로 도서관을 위치시킴으로서 정보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도서관이 자원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독과적인 출판 구조의 다원화를 꾀함으로써 질적 향상을 구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주출판을 중심으로 다뤘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자주출판물의 유통과정 및 가능성에 맞추어 서술했기 때문에 현재 자주출판물의 구체적인 현황에 관한 언급이 미비하다. 또한 그 조사도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보다 간행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차후 면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자주출판물의 가치에 대한 문헌정보학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주출판물, 나아가 비주류 정보자원을 도서관에서 포섭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정보자원의 생산과 공유를 위한 어떠한 편견도, 목적도, 압박도 없는 공간이어야 한다. 출판이 다양성을 지향한다면, 도서관은 특성화를 지향해야만 한다. 본고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이상을 다시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로에서, 본 글이 도서관의 또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5

참고문헌

▷ 논문

강은영, 장덕현. 2012. “공공도서관의 자료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p.457-479

강은영, 2013,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3, p.153-182

김앵아, 강현주. 2010. “디자이너의 스몰 퍼블리싱이 문화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학연구: 23-4. p.105-114

노영희, 2014, “도서관 무한창조공간 구축 및 운영모형 제안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1, p.53-76

박옥화, 2011,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베스트셀러에 관한 인식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p.3-22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p.5-22

이산호, 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여름호: 28, p.289-315

이수진, 2009, “글로컬 대중문화와 문화 스펙트럼의 다양성 - 앙굴렘의 만화산업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7, p.265-290

정선아, 2010, “한국 자주출판물에 대한 연구 - 2008-2010년의 디자이너-제작 출판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학회 2010 디자인통합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pp.22-23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p.159-178

▷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3. “201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제11318호)

문화체육관광부, 2013,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개선방안 연구”

▷ 칼럼

배두호, 2010, “인디는 없다”, 레프트대구: 1. p.265-266

임경용, 2010, “소규모 자주출판으로부터 찾는 문화적 가능성”, 플랫폼: 23. p.16-20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6

▷ 보도자료

동아일보, 1992.8.24일자 기사, “베스트 셀러 대형서점 「순위」의문 많다”

경향신문, 1997.12.8일자 기사, “베스트셀러 ‘조작세력’ 꼬리잡혔다...도서신문 ‘사재기 현장’ 보도”

매일경제, 2014.7.8일자 기사, “간행물 사재기 신고땐 포상금 최대 200만원”

스포츠동아, 2014.9.1일자 기사, “KT&G, 독립출판물 기획전 ‘제5회 어바웃북스’ 개최”

뉴스1, 2013.10.17일자 기사, “이웃과 소통하는 ‘동네잡지’ 전성시대”. [online.] [cited 2014.09.14.] <http://news1.kr/articles/?1365979>

이투데이, 2014.3.28일자 기사, “[출판]작지만 강한 ‘동네잡지’의 아우성”. [online.] [cited 2014.08.28.]<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1974>

▷ 웹자료

도서관법 제2조(정의). [online.] [cited 2014.09.06.]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202#0000>

독서르네상스운동, 2014.6.26일자 게시물, “독특한 그들만의 매력. 독립출판서점 ‘더북소사이어티’”. [online.] [cited 2014.9.14.] <http://www.readingrenaissance.or.kr/rb/?c=7/20&uid=40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online.] [cited 2014.09.23.] <http://www.unesco.or.kr/about/side_03_view.asp?articleid=19&page=2&SearchItem=&searchStr=&Gubun=&Cate=>

전국도서관통계 - 도서관현황총괄표, 문화체육관광부. [online.] [cited 2014.09.10.]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3&tblId=DT_113_STBL_1018310&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7

▷ 홈페이지

경주시립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kjlib.or.kr/>
광주광역시립도서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citylib.gwangju.kr/main/sub.php?mno=190>
나주시립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lib.naju.go.kr/>
남양주시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lib.nyj.go.kr/intro/index.jsp>
대구중앙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tglnet.or.kr/>
대전한밭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hanbatlibrary.kr/>
더북소사이어티 [online.] [cited 2014.09.14.] <http://www.thebooksociety.org/>
미디어버스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4.09.17.] <http://mediabus.org/About>
밀리미터밀리그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4.09.23.]
<http://mmmg.net/mmmg-history/>
바이왓유빌리브. [online.] [cited 2014.09.02.] <http://www.bwyb.net/>
부산금정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library.geumjeong.go.kr/main.php>
부여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bylib.go.kr/>
스토리지 북앤필름 [online.] [cited 2014.09.14]
<http://storagebookandfilm.com/shop/main/index.php>
스트리트 H. [online.] [cited 2014.09.18.] <http://street-h.com/>
유어마인드 [online.] [cited 2014.09.14.] <http://www.your-mind.com/>
유어마인드 블로그. [online.] [cited 2014.09.14.]
<http://yourmind-bookshop.com/faq>
언리미티드 에디션. [online.] [cited 2014.09.14.]
<http://unlimited-edition.org/?p=304>
인천화도진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ihl.kr/>
전주시립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lib.jeonju.go.kr/index.sko>
제주도 공공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lib.jeju.go.kr/>
제천시립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jclib.okjc.net/main/index.do>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8

창원시 의창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www.cwcl.or.kr/2010/lib/changwon/main/main.php>
춘천시립도서관. [online.] [cited 2014.09.18.]
<http://jclib.okjc.net/main/index.do>
출판물불법유통사재기신고센터. [online.] [cited 2014.09.10.]
<http://www.cleanbook.or.kr/>
퍼블리셔스 테이블. [online.] [cited 2014.09.14.]
<https://ko-kr.facebook.com/publishers.table>
프롬더북스. [online.] [cited 2014.09.14.] <http://www.fromthebooks.com/>
헬로인디북스. [online.] [cited 2014.09.12.] <http://www.hello-indiebooks.com/>
ALA homepage. [online.] [cited 2014.08.28.].
<http://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wikipedia. [online.] [cited 2014.09.13.]
<http://en.wikipedia.org/wiki/Self-publishing>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99

장 려 상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 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 간의 MOU체결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 제안

문 성 훈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최 호 빈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김 대 성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0

목차

서론

이론적 배경
1. 주요용어에 대한 정리
2. 관련연구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대상
2. 설문내용 및 구성
3. 자료수집 및 처리

연구결과
1. 공공도서관 현황 및 의견
2. 공공기관 현황 및 의견
3. 결과의 종합

정책제안
1. 정보활용교육
2. 정책 세부사항
3. 정책 실행계획
4. 인력
5. 정책의 효과

한계 및 제언

결론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1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 간의 MOU체결을 통한 정보격차해소 방안 제안

문성훈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최호빈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3학년
김대성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학년

요 약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그로 인해 '복지'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시에서 시행되는 약 1,500여 건의 복지정책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이 중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책은 불과 40퍼센트 내외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효율적인 정보 공급원의 부재이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의 정보 공급원의 역할을 도서관이 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은 도서 대출, 열람실의 이미지가 강하고, 본래의 역할인 정보의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 정책은 이용자에 따라 그 범위와 깊이가 가변적인 정보이므로 정보 전문가가 나서야 효율적, 효과적인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서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도서관이 가장 적합하다.

현재까지 복지정책서비스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 복지정책 인지 부족으로 인한 소외계층 문제,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MOU를 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의 현황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공공도서관과의 MOU를 통한 정보 공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으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규모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상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조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 한다. 첫째, 도서관이 복지정책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해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공공기관과의 MOU를 통한 협력을 제안한다. 둘째, 인적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소, 중규모 도서관의 경우 인적, 경제적 자원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이 정책에 뛰어들 것을 제안한다. 셋째. 나아가 도서관 내에 TNC 설립을 통하여 도서관이 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지사회 이룩에 기여 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2

I. 서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긴 대한민국은 복지열풍이 불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경쟁구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소외계층들을 보살피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그들의 정책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웹페이지이다. 그러나 웹페이지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정책을 통해 혜택을 얻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소위 정보의 소외계층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공공 정보기관에서 이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모든 공중의 정보요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의 콘텐츠로 '복지정책정보활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대상자가 신청을 함으로써 시행된다. 그러나 정책의 인지부족, 홍보부족 등에 의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영희(2012)는 공공도서관에서 '건강정보리터러시'에 관한 교육 실시 후 정보 검색, 정보 접근, 질적 정보 활용, 양적 정보 활용 능력 전반적인 능력들이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복지정보라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복지정책 활용 프로그램의 운영도 가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미국의 고먼(Michael Gorman)이 제시한 신 도서관 제 5법칙 중 '도서관 봉사를 위해 과학기술을 지적으로 이용하라.'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옹호하라' 라는 문항이 있다.[1] 이는 도서관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형태로 된 자료와 문명의 기록물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며, '복지'가 시대의 중요 이슈라는 것을 감안할 때, 도서관에서 복지정책정보활용 프로그램 개발, 교육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도 도서관의 설립목표를 정보격차 해소에 중심을 맞추고, 다양한 도서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도서관발전계획(2014-2018)[2]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지원에 청소년시기~청장년층시기의 주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정보활용교육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현재 흐름을 반영하는 도서관, 더 나아가 도서관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복지정책의 정보활용교육이 필요하다.

---

1) 이용재. 2007.『마이클 고먼 -기술맹신주의를 격파하고 도서관의 미래와 사서적의 비전을 제시-』. 도서관계 149(1). 26-29

2)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3

그러나 2013년도(12년 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3]에 따르면 대규모 도서관 그룹으로 분류되는 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정보활용교육에 쓰이는 예산은 한정적이고, 사서의 수도 적은 편이여서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정책 정보활용교육의 실행 방법으로서 MOU를 제시한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하 MOU)의 줄임말로써 국가 간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 기록하기 위해 쓰이던 문서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성격이 바뀌어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적으로 협약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이 MOU를 맺는 것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며, 공공도서관에서는 모든 이용자의 정보요구충족, 평등한 정보접근을 실현할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정보활용교육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활용교육을 실행할 때 나타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MOU의 적절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제공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및 정보활용교육에 관련 된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였고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작성,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주요 용어에 대한 정리

● 복지정책

복지정책이란 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나 소득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삶의 질, 즉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지칭한다. 이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나 정책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에 관한 정책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정의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으로 조세나 국방, 환경, 에너지관리, 주택, 건강, 소득지원, 보건, 노동, 건설 등

3) 차미경 외. 2013. 『2013년도(12년 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4

에 관한 일련의 행동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 복지정책은 소외계층이 필요로 인해 직접 신청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것으로 한정한다.

● 복지 소외계층

복지소외계층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즉 국가적인 공공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가 제한된 계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학자들 가운데서도 통일되거나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복지선진국에서도 복지소외계층을 한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발달과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서 여전히 소외된(marginalised) 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안전망(social safe net)이 꾸준히 보충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전반적인 사회의 소외계층[5)]을 대상으로 하여 발달하였으며, 따라서 제도에서 법적으로 정의하는 대상 이외에는 소득보장이나 각종 사회보험 등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난다.[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복지소외계층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고, 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 자체에 대한 인지부족이나,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 MOU

MOU란 국가 대 국가, 뿐만 아니라 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체결하는 문서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합의를 말한다. 국가기관 또는 기업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는 MOU는 주로 쌍방의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며, 각 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인 비난이 따르는 정도이다.[7)]

---

4) 네이버 학문명 백과: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 2014.[online].[cite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64874&cid=44412&categoryId=44412>
5) 전통적으로 저소득 빈곤층, 여성, 한부모가족, 장애인, 실직자, 노숙인, 노인, 위기아동,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소외계층'이라고 한다.
6) 최균, 정경배, 장진용. 2011『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방안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 하홍준. 2006.『업무협약(MOU)체결 매뉴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MOU는 서울시 공공도서관들과 서울 25개 구청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으로 기관 간 법률적 강제성은 없지만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

● 정보활용능력

정보활용능력이란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평가하며 사용할 줄 알도록 개인에게 요구되는 일단의 능력을 말한다. 정보활용능력은 오늘날과 같이 기술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정보자원 양적측면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 환경이나 작업환경, 심지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보활용능력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탐색, 접근, 수집, 가공,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2. 관련연구

이 장에서는 복지정책의 현황에 대한 연구와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최병호(2014)는 역대 정부의 복지정책을 파악하여, 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를 분석했다. 시대가 흐르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기조와 일부제도는 변화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미시적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예산과 제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능식, 신두섭(2014)은 인구변화를 예측을 통해 복지수요에 대해 조사하였다.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생존율과 인구이동률을 분석하여 향후 10년의 인구를 예측하며, 노인인구비중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의 분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수와 등록 장애인 수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고령화, 저 출산으로 인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의 인구비중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지정책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최균 등(2012)은 복지정책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문헌연구,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조사하였다. 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수단에 대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접근성이 낮다는 취약점이 존재했다.

8)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hicago. ACRL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6

정부의 2013 연차 보고서[9]에 의하면 국민들의 ICT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ICT와 상상력, 창의력을 결합하겠다는 계획도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가정보화 계획을 서술한다. 그러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4년에 발표한 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보고서[10]에 의하면 역량/활용측면에서는 그 수치가 아직도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

노영희(2012)는 건강정보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을 때 그 효과는 괄목상대할 만한 것임을 밝혔다. 우선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여 인터넷을 통해 건강정보를 검색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관련 용어에 대한 익숙한 정도, 정보 탐색 가능 정도,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발견 능력 모두 향상된 것으로 보아 복지정책에 대한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것으로 예상한다.

캐나다의 토론토 공공도서관 Jane Pyper City Librarian이 올해 4월 제출한 직원 보고서[11]를 참조하면, 도서관과 Cisco Canada 기업 사이의 MOU를 통한 파트너십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파트너십의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개입 장려, 도서관 운용 효율성 증대, 도서관 서비스 확장, 정보격차해소 등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타 기관과 MOU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llis, K.[12]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의 학교, 사회복지기관, 기업체,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협업을 유지 발전시켜 가는 사례들을 언급함으로써 도서관이 지역의 관련 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협력기관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존재감을 확대하는 동시에 당면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

TechSoup Global의 프로젝트 일환인 TechSoup for Libraries가 제공한 자료[13]에 따르면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불필요한 노력이나 활동의 중복을 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서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협업이 도서관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도서관의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9)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2013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10)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11) Cisco Canada- Toronto Public Library Partnership. 2014.[online].[cited].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content/about-the-library/pdfs/board/meetings/2014/apr28/11.pdf
12) Ellis, K. 2011.『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in Public Library Communities : Resources and Solutions』. lgi Global
13) Ten Examples of Successful Library Collaborative Projects.2014.[online].[cited] <.http://www.techsoupforlibraries.org/cookbook-3/communication-and-partnerships/tools/ten-examples-of-successful-library-collaborative-pro>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7

를 높이고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박희진·배경재(2012)는 현재 정보활용교육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도서관의 공간부족이다. 정보활용교육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공간 및 기자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도서관에서는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둘째. 도서관의 예산부족이다.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 예산이 아주 미흡하다. 셋째, 도서관의 인력부족이다.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정보활용교육을 담당하는 지정된 담당자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배정한다.

이제환(2011)은 전혀 한국스럽지 않은 사서와 한국스럽지 못한 커리큘럼에 대해 비판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한국 사회에 알맞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도서관계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복지정보에 대한 소외계층이 존재하고, 복지정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복지정보활용교육을 제안한다. 그러나 한국의 도서관계 현실에서는 정보활용교육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책의 실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MOU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험적 계획을 제시하며, 소규모 설문지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대상

본 설문은 도서관과 공공기관 사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도서관에서 정보활용교육 실시하는 것에 관한 인식조사이다. 설문은 도서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서관의 범위는 도서관법 제4장 27조에 의거하여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서울시 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을 선정하였고,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소, 중, 대 로 나누었다, 규모에 대한 분류 기준은 '2013년도(2012년 실적)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거하였다. 일차적으로 지역을 서울시 한정하였고, 선정한 기준에 따라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을 분류하였다. 그 후 선정 된 도서관의 비율을 맞추고자 가장 적은 수의 중규모 도서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소규모와 대규모 도서관의 조정이 불가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기준으로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 사서가 없는 경우, 장서수가 적은 경우를 제외하여 중규모 도서관과 비율을 맞추었다. 대규모 도서관의 경우 선정된 중규모, 소규모 도서관이 속한 지역구를 제외한 구에 위치한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8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선정하였고, 선정한 대상의 업무 범위는 구(區)의 행정사무 및 사회복지이며 지역은 서울시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은 선정한 도서관이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 산하 18곳의 구청의 복지정책 실무자이다.

<표 1> 조사대상 구청

	명칭		명칭		명칭
1	강남구청	7	동작구청	13	중구청
2	강북구청	8	동대문구청	14	용산구청
3	광진구청	9	관악구청	15	영등포구청
4	강동구청	10	금천구청	16	은평구청
5	마포구청	11	송파구청	17	중랑구청
6	성동구청	12	성북구청	18	양천구청

<표 2> 조사대상 도서관

	소규모도서관	중규모도서관	대규모도서관
1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2	글빛정보도서관	성동구립금호도서관	동작도서관
3	조원도서관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양천도서관
4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중랑구립면목도서관	남산도서관
5	소나무언덕작은도서관2호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6	달빛마루도서관	강동구립해공도서관	강북문화도서관
7	응암정보도서관	강동구립암사도서관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8	중구구립신당도서관	강동구립강일도서관	강남도서관

2. 설문내용 및 구성

설문지는 도서관 사서용, 공공기관 실무자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신상정보에 관한 문항은 공통적으로 설정하였다.

신상정보에 관한 설문문항을 제외한, 두 설문지의 문항 수는 평균 5문항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의 유형은 객관식을 사용하였다.

사서용 설문지는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재 도서관에서 '복지정책'에 관한 민원 발생 현황 및 조치방법에 대해 조사하였고 현재의 문제해결에 대한 제시한 정책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용 설문지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현재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지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09

정보활용교육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파악하였다.

<표 3> 설문개요

	내용(문항 수)	문항 수
사서용	복지정책 민원의 유무(1)	4
	민원의 양(1)	
	대응방법(1)	
	정책의 선호도 조사(1)	
공공기관용	복지정책의 양적측면(1)	5
	복지정책의 효율성(1)	
	복지정책의 홍보(1)	
	도서관전문서비스(1)	
	협조의사(1)	

3. 자료수집 및 처리

본 설문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인 구글닥스(Google docs)를 통해 제작하였으며, 사전연락 후 이메일(E-mail)을 통해 배포하였다. 사전연락 시 자료수집기간을 2014.09.11.~20014.09.23.제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구글닥스의 경우 온라인상으로 응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응답이 저장된다. 업무 및 규정, 연락불가 등의 이유로 설문참여를 거절한 11곳을 제외한 사서용은 총 17부가 배부되었으며, 공공기관용의 경우 총 14부가 배부되었다. 31부의 설문지중 25부가 회수되었으며, 80.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절반이상 작성 되지 않은 설문지는 없었으며, 25부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설문지는 조사 내용별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공공도서관 현황 및 의견

설문 응답은 총 15명의 사서들이 응답해 주었으며 담당업무와 경력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당 업무의 분포는 15명 중 문화교육 및 대외협력이 4명(26.7%), 열람실 관리가 4명(26.7%),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0

자료조직이 4명(26.7%), 서무행정 2명(13.3%), 기타응답 1명(6.6%)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이 5년 미만이 7명(46.7%), 5년에서 8년 5명(33.4%), 8년~10년 1명(6.6%), 10년 이상 2명(13.3%) 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5명(100%), 남성 0명(0%)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 4> 담당 업무분포

	소규모도서관	중규모도서관	대규모도서관
서무행정	1	1	0
문화교육 및 대외협력	2	0	2
자료조직 및 장서개발	2	1	1
열람실 운영	0	3	1
기타	0	0	0
계	5	5	5

<표 5> 경력 분포

	소규모도서관	중규모도서관	대규모도서관
5년 미만	3	2	2
5~8년	0	2	3
8~10년	0	1	0
10년 이상	2	0	0
계	5	5	5

<표 6> 성별분포

	소규모도서관	중규모도서관	대규모도서관
남	0	0	0
여	5	5	5
계	5	5	5

복지정책 질문 유무 질문은 실제로 현재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복지정책에 관련된 질문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그 결과 대규모 도서관 2곳, 중규모 도서관 1곳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항 2에서는 이용자들이 일주일 동안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을 얼마나 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모든 도서관이 10건 미만의 질문을 받는 다고 응답하였다. 세부적으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1

로 살펴보면 소규모 도서관은 민원이 없었음으로 응답이 없고, 응답을 한 대규모 도서관 2건과 중규모 도서관 1건 모두 10건 미만의 민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수많은 복지정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질문이 도서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서관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이미지가 부족하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복지정책에 관련된 질문을 할 경우 사서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응답결과 중규모 도서관에서 '타 기관으로 안내한다.'는 응답이 나왔고, 대규모 도서관의 경우 '같이 검색 해주며,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한다.'라는 응답이 2건 나왔다. 도서관에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나 대처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을 수록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자제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서를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복지정책 전문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정책의 선호도는 2.9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규모와 소규모 도서관은 모두 2.2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 대규모 도서관은 3.6점을 보인다. 소규모와 중규모 도서관은 정책의 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도서관의 경우 정책의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표 7> 정책의 선호도 분포

	소규모도서관	중규모도서관	대규모도서관
1점	1	1	0
2점	2	2	0
3점	2	2	3
4점	0	0	1
5점	5	0	1
계	5	5	5

<표 8> 도서관 규모별 정책의 선호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소규모도서관	5	2.200	2.6833	1.2000
중규모도서관	5	2.200	2.6833	1.2000
대규모도서관	5	3.600	3.7815	1.6912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2

사서들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연구, 정부발간 보고서,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그 이유를 총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담당자의 업무 부담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공공도서관 1관의 봉사인구는 61,532명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 1관을 기준으로 영국 14,826명이며 독일 10,060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에 비해 약 5배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많은 봉사인구에도 불구하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의 사서 수(비정규직 포함)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14]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은 총 90개관으로(2012년 12월 31일기준) 총 471명의 사서(정규/비정규직 포함)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보아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 1개관당 사서 수는 5.2명에 불과하며, 이 역시 각 구별로 구분해보면 수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봉사인구에 비해 사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소수의 인원이 다중의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 부족

외국의 도서관들을 보면 예산, 시설 부재 등의 문제로 도서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NYPL)의 경우 월드뱅크 같은 타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TPL)의 경우에는 시스코 캐나다라는 네트워크 업체와 MOU를 통하여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들은 예산상의 이유와 장서 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도서관들 사이의 협업들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도서관은 도서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도서관 이외의 타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도서관의 예산 부족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도서관은 예산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NYPL) 같은 경우에는 월드뱅크와 같은 사설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사회 안에서도 도서관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도서관이 외부의 도움을 통하여 예산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

14)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 정보공개. 2014.[online].[cited]. <http://www.opengirok.or.kr/3563>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3

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연구[15]에 따르면 도서관 예산은 대체로 지자체의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자체 예산이 많은 자치구가 도서관 예산도 많이 편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지차체도서관의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49.3%로 지자체의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자체적으로 도서관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박희진, 배경재(2012)의 연구에서 정보활용교육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있다.

그 결과 사서들 대다수가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정보활용교육을 위한 도서관 예산이 정보활용교육 운영에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제환(2011)의 연구에서도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예산측면이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 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계획의 실현문제에 있어 자금적인 원인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볼 때, 사서들 또한 정보활용교육을 위해서 도서관의 예산 확보가 아주 중요하지만, 실제 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2. 공공기관 현황 및 의견

설문응답은 총 10명이의 실무자가 응답해주었다. 응답자의 담당업무는 사회복지분야가 9명(90%)로 가장 많았으며, 홍보 및 대외협력이 1명(10%)로 뒤따르고 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경력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5년 미만이 4명(40%), 5년에서 8년이 3명(30%), 10년 이상이 3명(30%)이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3명(30%), 여자7명(70%)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9> 업무분포

담당업무	구청(기관)
대외협력 및 홍보	1
사회 복지	9
계	10

15) 김영석. 2011.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20-323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4

<표 10> 경력분포

근무경력	구청(기관)
5년 미만	4
5~8년	3
10년 이상	3
계	10

<표 11>성별분포

성별	구청(기관)
남	3
여	7
계	10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의식주와 건강을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국민 개개인이 이를 스스로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스스로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미시적 관점[16]에 해당되는 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항에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시하고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복지정책의 수를 알고자 하였다. 수의 범위는 0~100까지 이며 100을 초과하는 응답의 경우 100건 이상으로 포함하여 숫자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응답의 결과 정책의 수가 25건~50건(30%), 100건 초과(30%)로 가장 많은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복지정책의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복지정책의 양

	구청(기관)
25건 미만	2
25~50건	3
50~70건	2
70~100건	0
100건 초과	3
계	10

16) 네이버 학문명 백과: 사회과학 보건복지정책. 2014.[online].[cited].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471&cid=44412&categoryId=44412>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5

복지정책의 효율성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0%부터 100%까지 전 비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의 결과는 10~40%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높은 수치인 80~100%에 대한 응답은 없었다. 가장 낮은 수치인 10%미만에 대한 응답은 1건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인식은 약 40%임을 알 수 있다.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표 13> 복지정책 인식조사 분포

	구청(기관)
10%미만	1
10~40%	4
40~60%	5
계	10

문항1과 문항2를 분석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균정책의 개수는 약 60건이며, 이 중 알지 못하는 정책의 비율은 약 60%다. 따라서 약 36건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홍보와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시행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효율성을 보안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홍보 즉, 효율적 측면의 향상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문항은 중복응답이 가능하게 설정하였다. 설문문항은 김찬동, 김정욱(2011) 연구에 의거하여 6개를 제시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인터넷 및 SNS과 기관지 및 정책 브로셔가 9건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응답은 TV 및 라디오와 행사 및 집회연설 3건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및 SNS를 활용한 홍보와 기관지 및 정책 브로셔가 1개 기관을 제외한 9개의 기관이 채택한 것으로 보아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이 동일하다. 문항 2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러한 홍보수단이 대체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4> 홍보수단 분포

	구청(기관)
인터넷 포털 및 SNS	9
기관지 및 정책 브로셔	9
TV 및 라디오	3
포스터 및 현수막	6
신문	4
행사 및 집회연설	3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6

"도서관에서 귀하의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설명해주는 전문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에 대한 문항의 결과는 평균 4.0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응답을 통해 현재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나 그에 따른 적절한 해결방안의 제시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서비스에 대한 가능성과 현재 문제해결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도서관 전문서비스 선호도 분포

	구청(기관)
1	0
2	1
3	2
4	3
5	4
계	10

제시된 정책에 대한 기관의 협조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기 위한 문항으로 협조가 된다면 도서관과 어떠한 연계를 통해 정책이 발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의사를 파악하였다. 예와 아니오 2가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90%가 정책에 대한 협조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보아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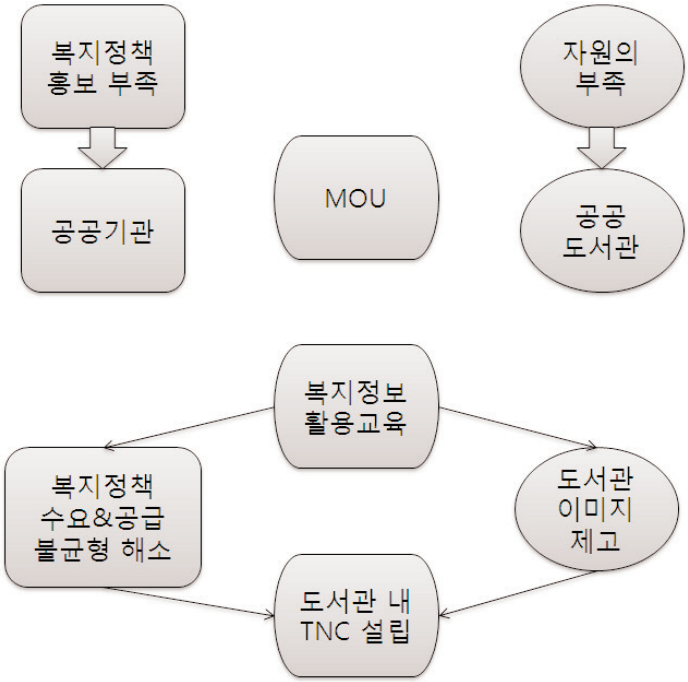
3. 결과의 종합

두 설문지의 결과를 조합한 결과 현재 도서관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 도서관이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 또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나 홍보적인 측면의 부족으로 복지정부의 실현의 장애가 되고 있다. 소, 중규모 도서관 그룹의 사서들은 환경적 문제로 인해 MOU체결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대규모 도서관 그룹과 공공기관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7

V. 정책제안

<그림 1> 복지정보활용교육



1. 정보활용교육

현재 정부에서는 정보격차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인터넷활용교육, SNS교육 등 다양한 정보활용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현재 정보활용교육에 참여하는 소외계층은 미미하다. 복지소외계층의 경우 과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외계층이 정보활용교육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가장 필요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생계와 관련이 많은 복지정책을 주 정보원으로 설정하여, 정보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8

2. 정책 세부사항

정책의 수혜대상은 복지정책의 수혜계층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들도 포함한다. 정책의 주최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서관으로 나뉜다. 정책의 시행 장소는 도서관이다. 그 이유는 도서관은 과거로부터 정보의 집약체이며. 정보교육자인 도서관 사서라는 인재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이 다변화하였으며, 사서의 역할 또한 과거에 비해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사서직의 교육적인 역할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박준식(2000)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자기교육의 실현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이며, 정보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정보탐색 및 활용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정보가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보탐색과 활용과정에서 사서들이 개입해야할 공간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사서의 교육자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는 교육전문가로서 정보이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하여 이용자 스스로 이용 가능한 정보원들 사이에서 적절한 정보를 탐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정책은 사서의 교육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며, 사서의 전문성과 직결된다.

3. 정책 실행계획

정책의 시행에는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사이의 업무협약 즉 MOU체결은 필수 불가결하다. MOU 체결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과 기업 혹은 부서와 부서 사이의 정보와 자원의 공유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무협약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보와 자원의 수집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언급한 Cisco Canada 와 Toronto Public Library의 사례[17]를 보았을 때. MOU는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MOU를 제안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리스크의 감소. MOU는 원칙적으로 국가 간 협상을 맺기 전 서로 의견을 확정하는 일종의 확인 절차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 그 의미가 변해 이제는 업무 협약으로서, 서로 계약은 맺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방식의 계약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급변하는 현대에 있어 실패 시에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리스크를 최소화시킴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과의 MOU체결에 있어 망설임을 줄일 수 있다. 그 신속성 또한 올라가서 신

17) Cisco Canada- Toronto Public Library Partnership. 2014.[online].[cited].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content/about-the-library/pdfs/board/meetings/2014/apr28/11.pdf>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19

속한 일처리가 가능하고 즉각적인 정책시행에 큰 공헌을 할 것이다. 두 번째, 관료주의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MOU를 제외한 기부 형태에 관계를 맺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기부 형태에 관계를 맺게 된다면 여기에는 강제력이 부여되지 못한다. 또한 관료주의적 사회에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일처리를 위해서는 문서로 된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기부 형태에 관계를 맺고 이에 기인한 일처리를 진행하다보면 책임 전가, 비효율적 업무 분담 등 업무적 효율성과 책임 처리에 있어 비생산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MOU가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에 관계 성립에 있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MOU체결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에서는 공공기관의 복지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수집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도서관사서가 직접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재교육을 받는 방법이다. 김태희, 리상용의 연구(2013)을 참조하면 도서관 사서의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정립하고 있다. 따라서 재교육은 사서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측에서 도서관에게 메뉴얼 및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제공이 어려운 경우 사서에게 복지정책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사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정책에 대해 탐구를 하면서 전문성을 높인다.

첫 번째 제안의 장점은 전문성을 갖추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현실적인 측면(시간, 장소)에서 어려움이 있는 점이다. 두 번째 제안의 장점은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정보제공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사서가 전문성을 쌓기까지 재교육에 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서는 복지 Data Base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복지정보활용교육을 개최한다. 나아가 복지정보활용교육이 확립되면, 도서관 내의 TNC를 설립하여, 도서관에서 복지정보 제공을 체계화한다.

4. 인력

본 정책의 실현에 있어 '사서'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도서관에서는 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사서직렬의 임용수를 높이는 것이다. 사서 수의 증대는 중·소규모 공공도서관에 사서 인력을 배치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두 번째 방안은 지역대표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실행하는 방법이다. 각 구의 대표도서관의 사서가 복지 Data Base를 구축하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면서 복지정보활용교육을 시행하는 것 이다. 세 번째 방안은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용규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20

(2011)는 외국 도서관의 경우 부족한 인적자원을 자원봉사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복지정보에 관해 재교육을 받은 사서가 복지정보활용교육이 가능한 자원봉사인력을 양성하여, 교육에 투입함으로서 인적자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정책의 효과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는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복지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해소이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공급은 많으나 수요가 매우 적은 편이였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란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때문에 복지정책을 통해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으나 받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홍보 및 정보접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홍보방법의 경우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하고, 복지정보접근에 있어서의 많은 정책을 한 웹(web)사이트 안에 수용하는 문제로 인해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복지정보활용교육을 통해 복지정책에 대해 알려서 홍보적인 측면을 보안한다. 또한 정보활용능력에 관련 연구를 보았을 때 정보활용교육의 개최를 통해 정보접근 및 활용부분에서 큰 향상효과를 거둔 사례를 보아, 교육대상자의 정보접근 및 활용능력이 향상할 것이다. 두 번째는 도서관의 이미지 개선이다. 현재 도서관은 서고 혹은 독서실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이 복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현재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미래의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본 정책은 미래의 도서관의 방향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발전한다면 도서관 내의 TNC(Total Nursing Center)를 설립하여, 도서관이 복지정책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한국형 정보활용교육이다. 학계에서 도서관 이용자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이제환(2011)의 연구를 보게 되면 현 정보활용교육에 대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제시한 정책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정책에서 제시한 정보활용교육은 복지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정책은 한국형 정보활용교육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한국형 정보활용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피드백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21

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이루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이며,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이슈인 복지와 관련된 소외계층의 정보력에 대하여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소외계층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복지정책이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공공도서관과 공공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한국형 정보활용교육을 제안하였고, 나아가 도서관 내 TNC 설립을 목표로 하여 도서관이 복지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복지정책 정보활용교육이 상용화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실시하지 못한 '중,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자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한 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규모 도서관으로 분류되는 그룹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서관들은 자력으로 적극적인 복지정책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실시한 설문지를 통해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인적,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이 드러났다. 복지정책 정보활용교육을 국내 모든 정보소외계층에게 제공하려면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공공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 정보활용교육의 교육자로서 자원봉사자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로 도서관을 꼽는다. 그런 역할에서 보아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은 매우 좁은 형태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단지 책 몇 권 빌리고, 공부를 하기 위한 독서실로서의 모습이 일반적인 도서관의 이미지이다. 최근에 들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지만, 이는 정보제공이라는 도서관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도서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고전적 도서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할 것 같다.

Ⅶ. 결론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보를 얻기 위한 대중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활용은 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보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또한 정보격차는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은 미흡하다. 2012년 정보격차지수 통계에 보게 되면 꾸준히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가 뚜렷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현재 대다수의 도서관,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활용교육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정보소외계층의 참여는 미미하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이 원하는 정보 활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22

용교육이 아닌 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교육에 한정하고 있다. 복지사회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수요계층은 많지만. 실제로 정책을 활용하는 인구는 매우 미미하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복지정책은 정보활용교육의 문제점과 동일하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지정책의 초점이 사회소외계층에 맞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소외계층이 극도로 적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제안한다. 정보활용교육은 단순히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아니라 정보교육의 주체가 해당 정보성을 인지하고, 교육을 통해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도서관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DB를 중심으로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창조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정보활용교육의 개최를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와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공동도서관 및 공공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활용교육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복지정보활용교육이 개최되면 창조경제 실현 및 도서관 이미지 제고에 있어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서관과 특정 기관 사이의 MOU를 통한 정보활용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다양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정보원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주제의 정보활용교육이 제안 될 수 있다. 또한 정책을 통해 도서관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홍보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 이다. 정책의 발전에 있어 공공도서관 사서가 정보교육자로서 적극적으로 협약을 맺은 기관의 복지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활용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공도서관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다. 도서관이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시시각각 반영하여 대중에게 제공을 한다면 도서관은 앞서 제시했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더불어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립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장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23

참고문헌

고영만 외. 2013.『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9차 도서관정책포럼』. 대통령 소속 도서 관정보정책위원회

김영석. 2011.『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4) 320-323

김찬동, 김정욱. 2011.『서울시 정책홍보의 효과성 제고방안: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242

김태희, 리상용. 2014.『위탁공공도서관 사서의 계속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363-395.

노영희. 2012.『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소비자건강정보(CH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성과측정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391-414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 2013.『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미래창조과학부

박준식. 2000.『정보환경의 변화와 사서의 역할변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2). 21-40

박준식. 2011.『정보서비스론』. 계명대학교 출판부: 대구

박희진, 배경재. 2012.『정보활용교육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이은빛. 2013.『대학도서관 정보활용교육의 활용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제환. 2011.『한국 도서관계 이용자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지 42(1): 3-27.

이종권, 노동조. 2011.『공공도서관 서비스 경영론』. 문헌: 서울

차미경 외. 2013.『2013년도(12년 실적)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최균, 정경배, 장진용. 2011『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방안 연구』.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균 등, 2012.『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화 및 복지정보 접근성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최병호. 2014.『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89-129

최승묵 외. 2013.『2013년도(12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24

하능식, 신두섭. 2014.『지방자지단체 복지수요변화와 재정전망』.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32(1). 207-237

하홍준. 2006.『업무협약(MOU)체결 매뉴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2013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2013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

Ellis, K. 2011.『Partnerships and Collaborations in Public Library Communities : Resources and Solutions』. lgi Global

Ma Lei Hsieh, Hugh A. Holden. 2010.『The effectiveness of a university's single-sessio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Reference Services Review. 38(3): 458-47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2014. [online].[cited].<http://www.libsta.go.kr/>

네이버 학문명 백과: 사회과학. 2014. [online].[cited]. <http://terms.naver.com/list.nhn?cid=44412&categoryId=44412>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홈페이지.2014.[online].[cited]. <http://www.clip.go.kr/>

서울시 구립공공도서관 정보공개. 2014.[online].[cited]. <http://www.opengirok.or.kr/3563>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2014.[online].[cited].<http://www.creativekorea.or.kr/>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2000).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Chicago. ACRL. 2014.[online].[cited]. <http://www.ala.org/acrl/sites/ala.org.acrl/files/content/standards/standards.pdf>

Cisco Canada- Toronto Public Library Partnership.2014.[online].[cited].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content/about-the-library/pdfs/board/meetings/2014/apr28/11.pdf>

Ten Examples of Successful Library Collaborative Projects.2014.[online].[cited] <.http://www.techsoupforlibraries.org/cookbook-3/communication-and-partnerships/tools/ten-examples-of-successful-library-collaborative-pro>

국립중앙도서관-수상논문집 3_레이아웃 1 2014. 11. 27. 오후 2:56 페이지 125

도서관연구소자료집 42

제6회 대학(원)생 도서관선진화 논문 현상공모 수상 논문집

인　　쇄　2014년 11월 26일
발　　행　2014년 11월 28일
발 행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 행 처　도서관연구소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전화 (02) 590-0799
　　팩스 (02) 590-0502
디자인·인쇄　PWKdesign (02) 717-0131

ISBN 979-11-5687-079-1 94020 : 비매품
ISBN 978-89-7383-223-1 (세트)